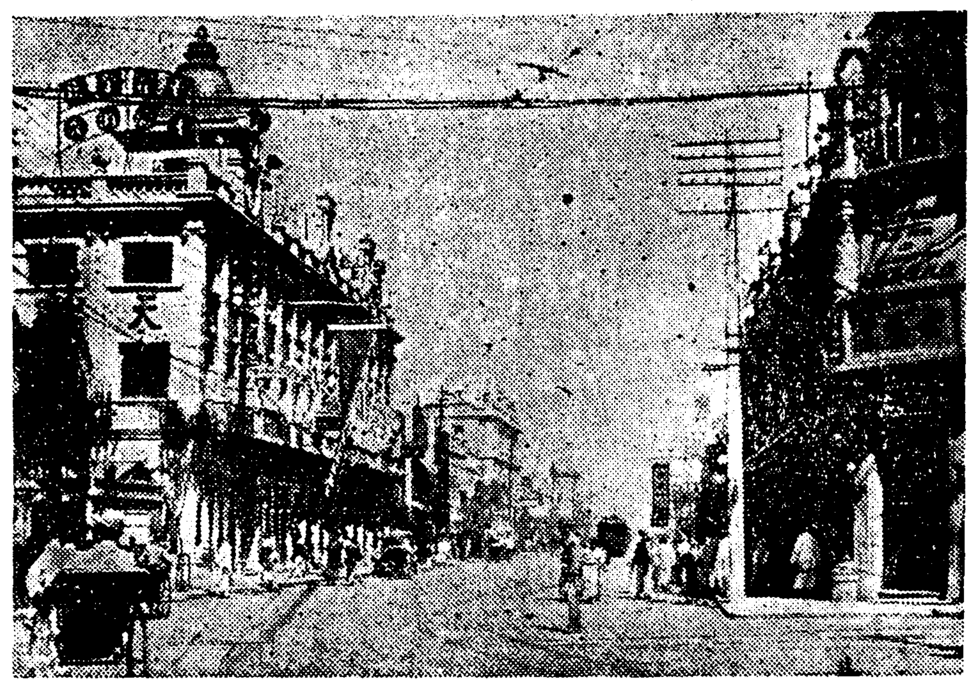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猛烈한戰鬪의中心遂天津으로移動!

天津에市街戰展開
銃砲聲全市를震撼
支那軍敗殘兵이潛入하야
日本租界目標로交戰

【天津二十九日發同盟】 市街戰은益益猛烈化하여 現在(午前八時五分) 銃砲聲은 全市를 震撼하고 잇다

【天津二十九日發同盟】 支那駐屯軍司令部 午前五時發表＝支那軍의 一部敗殘兵은 天津市內에 潛入하려고 午前二時頃부터 砲擊을 開始하엿는데 我軍은 이에對하야 嚴重警戒하는 同時에 目下 掃蕩中이다 天明과 함께 砲聲은 逐次 鎭靜되고 目下 我方에 損害는업다



(猛烈한 戰火의中의 天津日本租界)

日本租界危險!
支那軍의總勢二千

【天津二十九日發同盟】 敵은 日本租界에잇는 七層建物의 中原公司 빌딩을 目標로 銃砲彈을 集中함으로 我總領事館 日本人俱樂部 憲兵隊 同盟通信社支局은 砲彈의炸烈로 全然危險에 瀕하여잇다

【天津二十九日發同盟】 我軍과 交戰中인 保衛團은 正規兵이 其服裝을 保安隊로 變裝한데 不過한데 總勢二千名에 達한다

兩師敗殘部隊
續續保定方面에潰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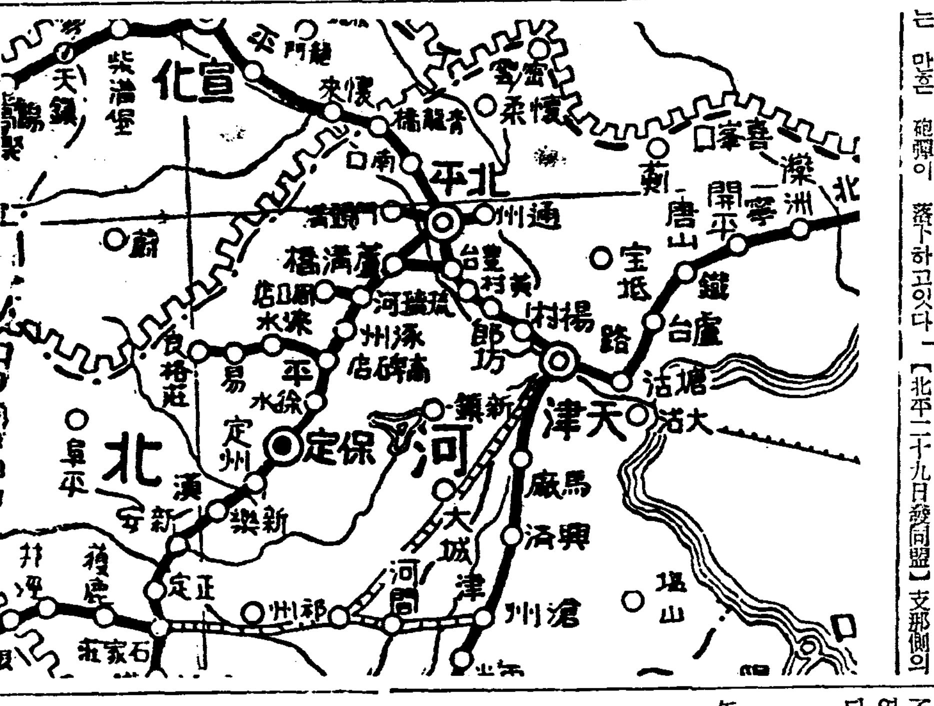
【北平二十九日發同盟】 西苑南苑一의敗殘部隊는 모다全然戰意를喪失一부터 保定方面에 潰走하고잇다 에서 潰滅된 三十七 三十八兩師一失하고 目下續續長辛店方面으로一

銃砲彈이 日本租界에落下

【天津二十九日發同盟】 二十九日午前四時半에도 依然 小銃彈、迫擊砲彈은 日本租界에 落下하야 午前二時半頃에는 日本租界 旭街 同盟通信社分局前 雜貨商 忠裕洋行附近에 落下 炸裂하엿다 日本租界는 目下 ○○部隊가 各要所를 防禦하야 물샐틈도업는 非常警備를 配布하엿다

抗日團策動으로 遂重大事態惹起

【天津廿九日發同盟】 午前八時卅一分發＝日本租界를目標로한 市街戰은 昭和六年十一月의 天津事變以來처음생긴일로 午前二時頃에 勃發하엿다 銃砲聲에 市民은 不安한一夜를새엿는데 不安은 밤이새여도 아직사라지지안흘뿐더러 도리혀 重大危機를 孕胎하고 最惡의事態를 展開하려한다 이는張自忠의 不在에乘하야 抗日分子가 共産黨의策動으로 事態를 이러케만든것으로 彼等은 自衛團組織下에 抗日戰의 一大展開를圖하고잇다



(北平、天津、大沽附近 略圖)

境界線을中心으로
市街戰더욱猛烈化
警察分署를支那保安隊가包圍
我軍이에對하야應戰中!

【天津二十九日發同盟】 二十九日午前八時에至하야 市街戰은 漸次猛烈化하야 支那街와의境界線을中心으로 더욱擴大되고잇다 租界의 突端第一分署附近으로는 支那側에서 發射하는迫擊砲、小銃彈으로 눈으로볼수업는 慘景을出現하고 租界의銀座通이라고도할 메인스트릿트旭街方面에는 만흔 砲彈이 落下하고잇다

【天津廿九日發同盟】 夜明과함께 銃聲은 漸次鎭靜되여 그대로終熄될것가티 보엿스나 午前四時五十分이되자 日本租界旭街北方 支那街境界線의 我警察第一分署는 抗日保安隊에 包圍되여 我方은 이에應戰中이다

支那軍全面的頹勢!

【北平二十九日發同盟】 支那側의 動靜은 二十八日夜부터 二十九日朝까지 總頹勢로 今朝에는 一發의 銃砲聲도 들리지안는다 城內에잇든 支那部隊와 第三十七師는 前線의 部隊와 合體하야 保定方面으로 撤退하고 第百三十二師의一部는 城內에 殘留하는模樣이다 我方은 殘留軍의 動向을 嚴重監視하는同時에 不純한 動機에서 北平駐兵을 엿보는 策動을 一切排除하고잇다

支那軍大損失

【天津二十九日發同盟】 二十九日午前八時十五分駐屯軍司令部發表

一、昨夜半부터 我天津飛行場方面에서 數百의 支那保安隊攻擊을 바덧스나 飛行場守備에當하여잇든 我部隊는 이를保持하면서 今日새벽이 이르러 飛行機爆擊과 併行하야 多大한 打擊을 與하엿다 敵은多數의 死體를 遺棄하고 四散하엿다

二、海光寺 西南方에서 今朝 我部隊와 交戰하야 거이全面的打擊을 受하고敗退한支那軍은 第三十八師 獨立第二十六旅及保安隊의 一部이다

三、昨日南苑附近의 戰鬪에잇서 野砲六門을 獲하엿다

敗殘兵伏在로 事態樂觀不許

【天津二十九日發同盟】 頑强히交戰하든敵은 我軍의 猛威에 견듸지못하야 午前十時二十分頃부터 各各發射彈뿐으로 大槪沈默하엿다 그러나 多少의 敗殘兵은 市內各方面에 伏在하여잇슴으로 事態는 決코樂觀을 不許하는狀態이다

兩軍本據地完全陷落

【北平二十八日發同盟】 第二十九軍第三十八師의 本據南苑은 我

[illegible]敢行한[illegible]에게[illegible]되고 第三十八師의 [illegible]部隊는 겨우北方에 [illegible]하야 永定河로부터 北平城內에 밀려드는듯한데 其後 我軍은 [illegible]附近에서 其退路를 遮斷하고 側面으로부터 ○○部隊가 [illegible]을行하야 [illegible]的打擊을 與하엿는데 敗殘兵의 北平城內 侵入의危險는 完全히 防止되엿다

支那軍猛烈히射擊
重要建物占據코모든武器를總動員
駐屯軍과居留民을向해

【天津二十九日發同盟】 二十九日 早曉二時頃부터 日本租界에 向하야 不法射擊을加한 支那軍은 獨立二十六旅의 全軍으로 韓家(天津西北方二〇粁)及天津南方湯流鎭에서 潛入한 部隊로 該支那軍은 完全한 正規兵이다 이에 益益兵力을增大 二十九日朝來 北寧津浦兩鐵路局、保安總隊本部、警備司令部、公安局第一區公署、市政府、大福公司及南開大學等을 占據하고 日本軍及 居留民에 向하야 小銃、機關銃、迫擊砲等 모든 武器를 動員하야 猛烈한 射擊을 加하고잇다 目下 午前十一時半에도 同軍이 發射하는 銃砲聲은 天津市中을 戰慄케하고잇다

스라우츠키氏를 駐日蘇大使任命

【莫斯科二十七日發同盟】 蘇聯政府는 二十七日附로 哈爾濱總領事미하엘·스라우츠키氏를 유레네프氏의 後任으로서 駐日大使로任命하엿다

宋哲元、秦德純 保定에逃避

【上海廿九日發同盟】 支那側保定來電에 依하면 宋哲元은 秦德純과함께 廿八日夜 北平發 長辛店을 經由하야 廿九日午前三時 保定에 到着하엿다 그리고 冀察政務委員會委員長及北平市長의 職을 張自忠에 代理케하고 天津市長은 天津警察局長李文田이가 代理하기로 決定、그리고 平綏鐵路局長張維藩은 辭任하고 張允榮이 後任에 任命되엿다

駐屯軍司令部中心
非常警戒를實施
停車場附近에서衝突

【天津二十九日發同盟至急報】 二十九日 午前二時頃 天津東站及總站의中間에서 日支兩軍이 衝突하야 午前四時에 이르도록 銃砲聲이盛大히 轟轟하게들린다

【天津二十九日發同盟至急報】 深夜의夢을破하는銃聲이 이러나자我租界는 駐屯軍司令部를 中心으로 警官及義勇隊를總動員• 非常警戒에 就하야 물샐틈도업시警戒網이配布되엿다 그리고 英佛租界等도特別警戒가實施되고 通信은 全部杜絶되여 死의街로化하엿다 【號外再錄】

海軍部隊 大沽攻擊開始!

【東京電話同盟】 二十九日午前十時海軍省에着電한 海軍最初의支那軍과의 交戰第一報는 左와如히 海軍省副官談으로發表되엿다

海軍省副官談 今朝八時十五分 大沽에서 [illegible]은 支那軍의 迫擊砲射擊을맛고 不得已 이에應戰 所在海軍部隊는 陸軍과協力하야 大沽攻擊을 開始하엿다

北支皇軍에感謝
南總督으로부터發電

北支에서 暴戾한 支那軍을 膺懲하야 皇軍의 武威를 遺憾업시 發揮하는 支那駐屯軍及 川岸部隊에 對하야 南總督은 廿九日 左와 如한 感謝電을 發하야 特히 香月司令官에 對하여는 在留朝鮮人保護指導를 依賴한바잇섯다

香月支那駐屯軍司令官殿

酷暑인此際 貴軍의 連日連夜의 御奮鬪를 感謝하며 益益 皇軍의 威武를 宣揚하야 國策遂行에 勇健하기를 祈願한다 그리고 朝鮮人의 指導及保護에 對하야 特히付託한다

川越部隊長殿

赫赫한 貴部隊의 戰捷을 祝하며 아울러 酷暑에 連日連夜의 御奮鬪를 感謝한다 朝鮮에서는 內鮮一體되여 銃後의 後援을 다하고잇스니 御安心하기바란다 貴部下에게 잘傳하여주기바란다

十名將士陣中告別式

【通州廿八日發同盟】 通州南門外에서 이러난 戰鬪로 壯烈한 戰死를 遂한 田村孝雄、內田幸榮兩少尉以下 十名將士의 陣中告別式은 廿八日午後八時에 嚴肅히 執行되엿다

執拗히對抗하면 空軍으로掃蕩!
支那保安隊敗殘兵、襲擊을敢行

三十米內서交戰
街路上에土囊을싸고서對峙
支那軍乘機反抗!

【天津廿九日發同盟】 支那保安隊敗殘兵等은 二十九日새벽 中日學院 警察第一分署 萬國橋 東站 東機器局 等五方面의 襲擊을 敢行하엿는데 中日學院 機器局襲擊部隊는 我方의逆襲을 맛나 全滅狀態이나 午前十時 現在萬國橋附近 及 警察第一分署附近의保安隊는 아직 執拗히 抵抗을 繼續한다 支那側이 끗까지 이러한行爲를 繼續하면 空軍으로써 斷乎掃蕩할수밧게업는 狀態이다

【天津二十九日發同盟】 旭街北端의日支境界線을挾한 交戰은依然猛烈을極하고잇다 民家屋上과窓口에서 射擊을繼續해야 彼我의距離는가장가까운것은 겨우三十米에不過하고 街路上에잇는 日支兩軍은土囊으로 [illegible]고잇슴으로 雙方이모두前進하지못하고 待機의狀態를繼續하고잇다 我方으로서는 民家住民에게危害를與함을避하는 人道的見地에서 總攻擊을避하고잇는데 彼는益益氣勢하야 反抗하야옴으로 駐屯軍의 一部隊는 依然○○으로써 一時이것을沈默케하엿스나 增援隊가 續續到着하야 容易하게退却하는模樣이업고 酷熱한太陽미테서 戰爭은다시금 繼續되엿다

【天津二十九日發同盟】(午前八時四十分) 船舶通過時에 開閉하는萬國橋는 今朝八時頃 支那側때문에 開放된대로잇서 日本租界와 東停車場의 交通은 遮斷되엿다

北平居留民은雀躍
支那兵撤收快報에

【北平廿九日發同盟】 市內에支那兵一人도 업다는 快報에 居留民은 雀躍을 開하나 大使館에서는 民會에 左와如히 通告를發하엿다 危險이 除去되엿다 할지라도 只今이第一緊張한時期이다 決코 輕擧妄動치말고 官憲當局의 命令이잇기까지 各自自重하기를 希望한다

我機關에
支那人出入頻繁

【北平二十九日發同盟】 今朝爾來 在平陸軍特務機關及大使館武官室은 支那側要人의 出入이자못頻繁하야 其中에는 昨日까지 反日氣勢를 올리드니 來日의自己命을 維持하려는 狡猾한者도介在하엿다 治安維持委員會는 今日中에 成立될듯하다

日本人보면敬禮
今井武官의各地視察談

【北平二十九日發同盟】 緊氣味한 籠城第二日인 二十九日아침七時半 今井武官은 市內에第一먼저 入하야 各處를 視察하고 左와如히말하엿다 모두明朗하다 支那兵의 [illegible]는 全然보히지안코 市內는 [illegible]悅에 넘치고잇다 土嚢은 漸漸撤去되여 交通은 自由自在다 日本人을보면 敬禮하고 반가워한다 昨夜까지의 戰慄에比하면 今朝의平和스러움은 一驚할만하다 我軍의가는곳은이 모양이다

時局認識强化次
刊行物을總動員
朝鮮中央情報委員會幹事會

朝鮮中央情報委員會定例幹事會는 廿九日午後一時半부터 第三會議室에서開催

一、防空施設

二、出征軍人家族慰問機關의設置

三、時局認識의徹底를爲한 總督府關係刊行物의總動員

에關하야 協議한後 第三項에關하야서는 『農村振興課에서 編纂하는 『農村振興彙報』三萬部를 時局宣傳特輯號로서 編輯發刊하기로하고 繼續하야 總督府各局機關誌인『警務彙報』『朝鮮의敎育』『朝鮮社會事業』『朝鮮』其他各種刊行物을 總動員하야 時局認識을爲한 特輯號를 發刊케 各其立場에서 一般大衆에呼訴하기로하엿다

時局認識에對해 各道知事를激勵

時局認識徹底에 關하여는 各道에서 各其 其周知徹底에 努力하고잇는데 總督府에서는 다시 各地方廳을 激勵하기爲하야 二十八日 文書課長으로부터 各道知事에게 時局認識强化運動을 促進하라는 激勵公文을發하엿다

今後交涉과處理
治安維持委員會成立後開始

【北平廿九日發同盟】 支那側은張自忠으로하여금 冀察政權의 全衝으로 代行케하야 今後政治的折衝에 地位保持繼續에 全力을傾注하는데 我方으로서는 張自忠을 비롯하야 一切의 軍閥을排斥할 意圖인데 이를支那側의 一方的選定을 認定치안코 今後交涉及 處理는 一切 治安維持委員會의 成立을 待하야 開始할 模樣이다 各般情勢를 綜合하면 治安維持委員長에는 張允榮이 就任하리라고 觀測되고 委員에는 楊兆庚等이 出場하야 活動을 開始한模樣이다

大沽支那軍射擊
我陸海軍應戰中

【天津二十九日發同盟】 支那駐屯軍司令部二十九日午前八時十五分發表 大沽에서 依然我軍은 支那軍으로부터 射擊을바닷고 陸海軍은 即時이에應戰中이다

失踪水兵
總領事館에送致

【南京二十八日發同盟】 二十八日午後十一時南京總領事館發表 二十八日午後一時頃外交部로부터 上海에서 失踪된陸戰隊水兵宮崎貞夫라고 自稱하는人物의 身體를 當總領事館에 送致하여왓다 이 人物이 日本人이라는것은 大略確實히 推定되엿음으로 爲先身體를 引受하엿다 이人物은 外交部로부터 送付하여온 取調書類에依하야 宮崎水兵으로 推定되는데 아직取調中임으로 目下關係者의 派遣을 要請中이다 따라 이取調가 終了하기前에는 果然宮崎水兵인지 아닌지 確定은못한다 다시 이人物이 如何한經路를밟아 當總領事館에 送致되엿는지아직 引受하엿슬뿐임으로詳細는몰은다

八面鋒

◇ 『準戰時體制에서 戰時體制로 飛躍할時期는왓다』 함은 南總督의訓示

◇ 戰時體制에 處할態度는 무엇인가.

◇ 第一線活躍을 못하는사람이라도 첫재는 時局을 認識할 것.

◇ 둘재는 各自職業과 勤務에 忠實하야 秋毫도 緊張이 解弛되어서는아니될것 等等。

◇ 近代朝鮮이 經驗한戰爭은 甲午 甲辰等兩次가잇스나、오늘과가티 정말戰時를 當한적은 업섯다。

◇ 이非常時局에 際하야 누구나 時局認識의 徹底를 期하랴.

京電大橋社長令侄 社屋頂上에서 跳下自殺

一般社員과 晝食時間休憩中

풀지 못할 죽은 原因

경성전기회사장 대교신태랑(大橋新太郎)씨의 족하로 현재그회사에근무하고잇는 대교면(大橋勉)(二七)이라는 청년이 이십구일오후 령시십분쯤에 사층옥상에서 땅바닥으로 떠러저서 머리가 깨여저 직사하여버렷다 별안간에 다른사원들과가치 점심휴게시간을타서 옥상으로 바람쏘이러 올라갓든 사원이 이와가튼 참변을 이르켓스므로 그 회사의 견목(見目)상무와 좌협(佐脇)서무과장과 장도(長島)영업과장과 기타 사원 일동은 창황히 그가떠러저 죽은정문압으로나가서 큰소동을 이르켯다 일방으로 시체를다른곳으로 운반하는동시 『아스팔트』의 길바닥에 붉게물을 드린비린내나는피덩이를 『호스』로 씻처내엿다 그는일즉이 경응대학리재과(慶應大學理財科)를 졸업하고 그림을 잘그리는 재조가 잇기때문에 그회사감리실(監理室)에서 근무 하면서 『포스터』그리는사무를 마타보고잇섯고 그의 가정은 전일보질업게에 굴지하는재산가로 그의안해와 두살먹은어린아들과 세가족이 단란히 지내왓는데 무슨까닭으로 이가티죽음의 길을 취하게된것인지 죽은사람에게 입이 업스므로다만 한가지의문표(?)를 남기고잇다

附近一帶雜踏

노픈빌딩우에서 어와가티떠러저죽는 일은동경(東京)서는수차잇섯스나 조선서는 처음보는사실이며 또한죽은 장소는 바로 남대문통 이정목 오번지로바로 황금정 네거리근처이여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한가지기괴한 회제거리가 되여잇다

原因은發作的? 京電庶務課長談

죽은원인은 아무리조사하여보아도 별로원인이될만한것이 업고 신경쇠약증세가 좀잇섯스므로혹은 더운일기에 돌연히 정신작용을이르켜서 떠러저 죽은것이 아닌가고 생각되나 아무리해도 미리계획적으로 자살한것으로는 생각할수업습니다 만약일부러자살할목적이엿다면 구두도신지안코 그냥보선발로 옥상에올라갓슬리가 업슬줄로압니다

(사진 점선은뛰여내린현장)

할수업는盜癖少年

집에먹을것이 잇서도 도적질을안하고는 못백이는 괴벽 전문의소년적이 본정서에 붓잡혓다 이십팔일 저녁본정서원이 경성역(京城驛)아페서 거동이 수상한소년한명을 붓잡아다가 취조하엿는바 그는황해도금천군 금천면(黃海道金川郡金川面)에 거주하는 전과일범 황수창(黃壽昌)(一八)으로 지난六월 인천(仁川)소년형무소를 나온후 고향에가서 부자유함이업시 지나고잇섯스나 저난 본집에서 기차를 타고 자는사람의호주머니에서 이십원가량이 드러잇는지갑을 훔처가지고서 서울까지 와다가다시고향으로ー이가티 왕래하며 여행자의 주머니를 털어먹다가 본정서원에게 체포된것이다

軍用自動車隊墜落 將兵十二名이死傷

國境警備次로茂山서三長으로行軍中 道路不備로卅米斷崖서轉落

【羅南】第十九師團司令部發表 지난 이십팔일 미고(尾高)재십구사단장이 국경경비지도차로무산(茂山)에가자 동지의 좌등부(佐藤部隊)○○명은 즉시무산삼장간(茂山三長間)의 경계를엄중히 하기위하야 오후다섯시쯤 자동차로 흥암(興岩)(茂山西南方十二粁)에 경비 행군을 하든도중 그곳히가 삼십메돌이나되는 절벽에서 추락전복되야 좌등소위이하다음열두명의 중경상자를내엿다

▲重傷 少尉 佐藤美喜 一等兵 殘沼藤助 同 仲內友八郎 同 沼田正

▲負傷者 上等兵 吉田太平 同 大河原善高 一等兵 松浦正治 同 廣瀨三郎 同 吉田廣治 同 爺石市之助 同 比佐宗市 同 大和田重光 同 鹿野合郎

더욱 중상한 좌등소위이하네명은 생명이 위독하다 이가티 좌등부대의 참화를이르키게된 원인은 조사한 결과 다음과가티 판명되엿다 도로가 불비한데다가 잡초(雜草)가 무성하야 로면과 절벽을 구별할수업시 되엿스므로 전복된것이다.

별항ー중상한 좌등소위이하네명은 응급수당도 효과를보지못하고 마침내 사망하고 마랏다는데 사상한 병사에게는 각각 다음과가티 진급(進級)의 어사태가잇섯다 佐藤少尉는 中尉 仲內 一等兵은 上等兵 殘沼 一等兵은 上等兵 沼田 一等兵은 上等兵

慘變突發以來 各界同情集中

【羅南】좌등부대의 참변은 긴장한제일선에 크다란 불행으로 일반의 동정이 집중되고잇는바 사건발표직후 아도함북지사가 사단장에 조전(弔電)을발한외 각방면에서 감격한 위안과 성의가쏠리고잇서 사단측에서도 감격하고잇다한다

그럴듯도한 自殺兩題

其一 닥처올將來를怯낸童妓가

其二 짝사랑에病든女高普小使

불원에 닥처올 암담한 생활에어린가슴을 조리다못해 드듸여 목을맨 가련한 처녀가 잇다ー부내전농정(典農町)○백구십팔번지의이호 김현준(金現駿)의맛딸 량배(良培)(一七)라는 처녀는 이십팔일밤집히 자기집뒤 처마끗헤 목을매고 죽어잇는것을이십구일 아침부모가 발견하엿는데 원인에대하야서는 유서가튼것이업서 적확한것을 알길이업스나 수년전부터 기생견습을하야왓스며 평소에 비관하는것가태보인점으로 이미기생된동무들의 허무하고도암담한생활에 멀지안허 자기압헤닥처올것을비관한것으로 추측된다고한다

×

여것은 직업을걸고한 련애가 완전히 실패에도라간것을 비관한 남자의자살소동ー이십팔일밤 아홉시반경 부내광화문통(光化門通)삼십번지에서 자전거포하는 신원달(辛元達)(二二)은 극약자살을 도모하야 고민하는것을 의전병원에다려다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그는 수년전부터 시내모녀자고등보통학교 소사로 다니든중 매일맛나는 그학교생도 김순애(金順愛)(一七)(假名)라는 어엿분처녀에게 짝사랑을 하다가이여쁜 그학교를좃겨까지 낫스나 가슴에그리는 그를 이즐수업서 면번이나 편지로물타는련정을토로하엿스나 회답조차업는것을 비관한것이다

急行列車가追突 死傷者卅餘名

今曉岡山驛構內慘事

【岡山電話同盟】이십구일오전두시삼십분 강산역구내에서 하관(下關)행 특급부사(富士)가 정거중에 때마침 뒤며처 달려든보통급행차가 이에추돌(追突)을하야 현장은흡연일대 수라장으로 화하야 사상자다수를 내인모양이다

【岡山電話同盟】이십구일 오전두시삼십분 특급부사가 강산역제일『홈』에정거중 하관행 대판발 보통급행렬차 일천일백일호가 이에추돌하야 일천일백일호렬차는 기관차와 뻐기ー차한대를 산산히깨트리고 특급『부사』도 후부의뻐기ー차를 대파하엿다 이참사로인하야 일천일백일렬차의승객중 사상삼십여명을내이게되여 현장은 흡연아우성치는 일대수라장이되엿다 시내각병원에 부상자를 옴겨여 응급수당을하고잇는중이데 렬차『부사』는 손해경미하여 동세시를지나서 강산역을출발하엿다

京織道軍事後援聯盟 今日道廳서結成

席上에서宣言을發表

제잇는 총후의 책임을 다하려고 경기도군사후원련맹은 제국군인 후원회경기도지부외십사단체로써 결성되여 이십구일오후한시부터 경기도청 회의실에서그결단식을 거행하엿다 식후에는감자(甘蔗)련맹회장이 결성보고를 하려 조선신궁에 참배를하고 또북지파견의 천안(川岸)부대장에 대하야 련맹결성의 뜻을 타전하엿다 그리고동시에 다음과가튼 선언을발표하엿다

방금비상시국에 직면하야우리경기도군사후원련맹은 더욱애국의 열의를 앙양하야 결속재휴하여나아가서 힘을총후의 임무에 다하야 열충의황군의 사기를고무진작하야 후고의 념려가 업시 그보답을다하게 하도록 맹서한다

京城府에서도

軍事後援聯盟을組織

경성부에서도 군사후원련맹(軍事後援聯盟)을 조직하고저 이십구일오전열한시에 경성부유용접실에서 그위원 이십사명이 모히여서 여러가지 협의를하엿다삼십일오후 두시에 또 위원회를소집하야 드듸여 결성식을 거행하고 금품모집기타에 적극적으로활동을개시하게될터이라한다

文書課에서

週報를發行

현하의 시국관계로 국도로긴장한총독부에서는 이십구일 정판문서과장(井坂文書課長)의명의로 각도지사에게 긴급통첩을 하얏는데 그내용인즉 『북지사변』에대하야 해외로평』이라고 제목한 주보(週報)를 발행하얏스니 이것을 인심안정과 시국인식에우효하게 이용하라는것이다

奉元寺에서도

國威宣揚祈願

시내봉원정(奉元町)에잇는 봉원사(奉元寺)에서는 지난이십오일부터 오전오시에 승려일동이 황군전승기원식(皇軍戰勝祈願式)을 성대히거행하야왓는데 삼칠일간을 계속거행한다고한다

國防獻金遝至

▲이십구일 부내종로서에들어온 헌금은 다음과갓다

一、金二百圓 仁寺町一九三 金鎭大氏 一、金五十圓 富士屋藥房 門通一丁目 一、金五百圓 蓮池町三〇 李泰植氏

▲동일 동대문서에들어온 헌금은 다음과갓다

全朝鮮農振會를動員 時局認識을宣傳

中央情報委員會計畫

조선중앙정보위원회(朝鮮中央情報委員會)에서는 이십구일오후 한시반부터 총독부제이회의실에서 간사회를개최하고방공(防共)에관한것과 총경군인의가족 부조에관한것을 협의할터이다 그리고 전조선의삼만의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를이용하여서 국에관한 선전을 적극적으로행하게할터이다

鍾氏 一、金五圓 同基町六六 安息教會宣教師 米國人李時和氏

▲이십구일 룡산서 보안계에드러온 국방의연금 헌납자는다음과갓다

▲부내원정(元町)일정목 염배십오번지 주금업(鑄物業)고도(高島)씨외 일명이 백원을 헌납하엿고 부내미생정(彌生町)환환루(丸丸樓)지점 전천(田川)유이씨가 오원 동정 미곡팔중자(梶谷八重子)씨가오원 동정송전각래씨가오원을 헌납하엿다

新京朝鮮人 各團體等奮起

時局大會열고重大決議

(新京)지나주둔군사령을 비롯하 선경재류조선인각종단체는 이번북지사변에 관하야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다음 과가튼 결의를하는동시에 향을 활동을 개시하엿다

我帝國政府는 東亞의 和平을 根底로부터 攪亂코저하는 隣邦支那의 暴戾를 膺懲하고저 破邪顯正의 師를이르켓다 吾人同志는 隱忍自重의 最後에 臨하야 擧國一致皇國의 使命에 殉할 決意로서 時難을 克服하고 참으로 亞細亞民族의 幸福增進에 邁進할것이다

新京朝鮮人民會 協和會新京朝鮮人分會 國防婦人會 首都朝鮮人分會 新京朝鮮人協和少年團

武運長久祈願祭

지난이십이일 오전십시부터 관계선사에 유내관민 유지등칠백여명이참집하야 무운장구기원제(武運長久祈願祭)를거행하얏다

벼개머리에둔 二千七百圓盜難

情夫에미친者의所行

이십팔일오전두시경에 고양군은평면수색리(高陽郡恩平面水色里)일백삼십팔번지 건축업자 도원원태랑(稻原源太郎)씨의 집에 어떠자가 침입하야 머리맛헤놋치 속에둔 현금이천칠백원을 훔처갓는데 이급보를받은 소관서대 문서에서는 비상소집을하야 활동한결과 그건축업자밋헤잇든 인부로한명이 거처불명인으로 어물수색하야 이날밤오후여시경에 은평면어떤술집에서 술을먹고잇든 범인 수색리(水色里)일백팔십팔번지 고영봉(高永鳳)(二〇)을 체포하엿다 고영봉은 범죄를전부 자백하엿는데 동내사는 김모(金某)와 터부터 술집녀자와 정여들어 그녀자를 빼여내자면 돈이 필요하므로 드듸여 도적마음을내여 전기와가티 여자범행을 하여 고영봉어저 일천백원을 도적하야 성지는 일대수라장이되엿다 주범김모는 엽전호백원을가지고 행금 주범은 도주중이로 경찰에서는 주범을 계속하야 엄중추적중이다

철업는少年의蠻勇

電線고치다感電即死

【元山】경성업는자가 대담한 만용을 쓰다가 감전즉사한 사실이 지난 이십구일밤 열시사십분경 원산부명석동과 본정오정목사이에세운 전주에서 전선에 고장이 생겨서 그선이들어간 몃집에서는 불이오지안해서 안달을 치고잇섯는데 그때마침 이광을 보고잇든 그부근에사는 김학선(金學善)(一七)이라소년이 대담하게도 그선을 고치려고 어리석게되는 전선을 어루만지다가 그만 감전이되여 즉사하얏다

多端時局에도 스포츠會合은無妨

近者地方當局의競技會干涉과 學務警務當局者意見

북지사변을 싸고도는 비상시국은 나날이그험악한정도가심각하야 각지방에서는 각종운동회 니하는『스포츠』회합을 경향의 할 축수영(水泳)대회니 야구대회 가튼일들로조차 하는일이 퇴근상당히 만타한다 그리유는비상시국에 운동회가튼것으로 떠드는것은 민중의근신하는태도가아니쪽 이때 이것을중지하야 각자근신하는뜻을 표하는것이어 맛당하다는것이다 그러나 총독부당국자의 의견으로는 어가튼무당국자의 회합에 탈선되지안는 정도에서는 오히려정신 작흥상으로 보아 조흠도주저할바가 아니라하야 운동하든 평상과가티 열어도 관계업다는 의향이요 일본내에잇서서도 운동하는것은 관계업다고보고잇다

대표자가 적정불당국을 차저여 개재한 의향을드렷스나 군부로서도 국민과 체육은 반드시병행할것으로 보아 운동경기는 중요한 일부분인으로 적극적으로행할 바이라는 의견을드렷으로 조선에잇서서도 온당한규모로 경기회를 여는것은 관계업다고보고잇다

精神作興上 獎勵가必要

鹽原學務局長談

여에대하야 감독당국자인 총독부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아모리 비상시국이기로『스포츠』회합을 중지식힐리는업다『스포츠』는 정신작흥과체위향상하는 의미에잇서서 비상시국일수록 더욱 장려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너무떠들거나 탈선행위에 각갑게되면 비상시국에 불근신하는것으로 볼수밧게업나니 이것은 각자가 조심할필요가잇다 하여간 총독부로서는 비상시국이라하야『스포츠』회합을 중지식힐 방침은업다 적당하게만하면더욱 장려하고십다

各自裁量할일

警務局伊藤警務課長談

어에대하야 취체당국인 경무국이등경무과장(伊藤警務課長)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경무국으로서『스포츠』회합을 중지식히도록한일은업다 비상시국에 맛지안는『스포츠』는 그야말로 각자의 자각에서 그러한회합은 문제가아니다 대단한 문제가아니라면 『스포츠』회합이 무슨상관이잇스랴 탈선행위가아닌것은 그리 관계업고 이것은 각자가알아서 할일인데 경찰로서는 하여간 운동회를 개최하고안는것은 각자의량심에 말할수가업다

天氣豫報

概況 七六二미리의 高氣壓은『오호츠크』海로부터本邦에 퍼지고 朝鮮과滿洲의 氣壓配置는 不安定하다 弱한低氣壓은滿洲中部、日本海中部及九州의 南西海上에 잇고 北鮮은 개이고 南滿洲와朝鮮은 개엿다흐렷다하며 京城과 全州는 아참안개가끼고 元山은 小雨 西日本及北海道南西部는 降雨가잇고 其他는흐린다

豫報 曇

昨日最高 三一度 同朝最低 二二度 今日正午 二八度

스포ー츠

中等野球豫選戰 大邱商業憤敗

龍中軍決勝戰에

大朝主催의 第二十三回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朝鮮第二次豫選準決勝 龍山中學(中部代表)對大邱商業(南朝鮮代表)戰은 二十九日午後一時六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中村(球) 石井、佐田(壘)三氏審判下에 開始되바 結局六對五로 龍中先攻으로 龍中軍이 辛勝하야 明三十日午後一時부터 열릴 決勝戰에서 湖南代表裡里農林軍과 對時케되엿다

【龍中】 井房孫保本島村廣枝 8 5 6 1 7 1 6 9 4 4 3 / 藤當山久高高宮信時

【大商】 下井治鐵田我均得大 6 5 9 1 8 3 7 4 2 / 竹新錫韓吉有崔朴李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龍山中學	3	0	1	0	0	0	1	0	1	6
大邱商業	0	0	3	0	1	1	0	0	0	5

第二回京平 水上代表

三十日夜平壤에

京城과 平壤兩都市에서 추리고 추린 뽑은 俊銳들어 登場하야 水上競技의 覇權을 決하는 第二回 京平對抗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아래 八月一日午後一時부터 平壤府箕林里 府營풀에서 擧行하게로되바 對抗戰의 날이 迫頭함을따라 兩都市代表들의緊張의度는 높아저잇다 어 연覇의 意氣高揚한 京城代表軍은 明三十日에 最終記錄會를 마치고 當日午後十一時 京城驛列車로 平壤에 向하기로決定되엿다

日米交驩競技

金寬羽君도出場

日本學生對米國陸上競의 交驩競技會는 來九月四、五兩日間 神宮競技場에서 擧行할터인데學生代表選手中에는 投擲에 旣報한 朴貴奎(普成專門)君外에도 法政大學陸上競技部主將인 金寬羽君이 選拔되엿다한다

떼杯決勝米國優勢

今年度떼杯決勝…英國對米國戰은二十四日부터 二十七日에『원블돈』에서擧行되엿는데 單式은 一勝一敗 複式은米國이 一勝하야優勢를보여고잇다

오스틴(英) 6…3 6…2 7…5 6 15…13 (米) 파ー카ー 버지 6…2 1 (米) 헤어(英)

新製品인銳機리드오로써ー뉴스ー클드르시라

ナショナル受信機(新製品)

Z―2	四球	23・00
Z―3	四球	37・00
R―25	四球	33・00
GR―40	四球(蓄音機兼用)	150・00
5S―2	五球(スパー)	120・00
AR―52	五球	95・00
AR―53	五球	115・00

◎八月二十日까지注文하시는분에限하야朝鮮式다리미一個式無代進呈함

高級ラヂオ電氣器具 卸商

東一電氣商會

京城 仁寺町 一六八 五番 電光(3)一六八五番 振替口座京城二六五〇三番

地方注文은送金先으로要함

朝報案內

住宅 京城府 茶屋町七六 電話本局五〇五六番 小口住宅資金特別低利提供 火災保險特別取扱 三益合名會社

特告 保證金五百圓擔保提出 職業信用잇는者로서 三十五才의男子中學卒業以上 外勤經驗이잇는者 入社하실분 洞町五ノ一二 春湖苑 一有三(?) 通知하시오

男女 有給社員招聘 經驗不問年齡二十五歲以上男女社員及(監督二名)招聘하오니希望者는 履歷書持參來談但午前中 京城府鐘路二丁目八二 日淸生命保險株式會社 東鮮出張所 白

外務社員招聘 經驗有無不問하고 健康하고 求職者 二十五歲以上 招聘합니다 京城府 一生命保險相互會社 電話本局 二三 三四番

雨衣都散賣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各種 紳士用レインコート各種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京城光熙門外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 電話本局一〇二一番 振替京城五三七六番

頭痛 齒痛 과 頭痛 에 →頭痛効散

效力이速하다고評判을맞는頭痛散은 神經痛에도퍽조타고 어느藥房에서든지만 히팔리고잇다 『말로보다한번試用하시오』

本舖 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本社營業局廣告部電話本局②六三八一

小資本經營

健胃強壯藥、鎭痛藥、止痢藥、咳嗽藥、小兒藥、腹痛止痛藥、口中淸涼藥、淋疾藥、梅毒藥、感冒止瀉藥、健胃消化藥、治淋止汗藥、瘡癤藥、皮膚外科藥以上家庭藥業者에物品取次

委托店及配給特約店을男女老少를勿論하고募集하오니希望者는左記各項을記入하여申込하시요

記

一、履歷의概況 一、投資豫定額特約委托店、支店出張所 一、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신분에게는特別優待합니다

京城府樂園町二〇九(電光九一二三番)

各種賣藥卸商 漢城藥舖本店 地方部白

精力強進劑 蔘茸トニク

虛弱者의體質改善에! 健康者의精力增進에! 特히男子의早老에効果百%

(諸疾病에對하야醫學博士實驗報告書와見本無料進呈) 三越、丁子屋外各地有名藥局에서販賣 二圓八十錢、五圓

製造元 京城鐘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發賣元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理研淸酒 新世界

마음노아 納涼하고 酒盃를 親케하니 醉한맛은 千兩

宿醉업슴

大鮮釀造株式會社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七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大公開 最高映畫大會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二時二回七時二十分(夜間) 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二階上十五錢階下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세실·B·데밀氏 傑作名篇 十字軍 主演 로레다·영크孃 헨리윌콕스氏

松竹京都特作品 루ー트ー키版 吉野英治氏作品 現代名篇 お化け花嫁 主演 澤井三郎 成田光 小笠原章二郎 東日大阪ニュース多數上映

團成社

三十日부터夜間一回 劇團中央舞臺公演 (第一週)每夕七時開幕

▲朴英鎬作 人生前哨兵 全二幕 ▲殷鍋山作 黃昏 一幕二場 ▲宋影作 假社長

(出演者)朴齊行、徐月影、沈影、孟晩植、李元根、宋在善、李軒、尹一淳、李載玄、太乙民、徐成大、任泳完、申鍾均、沈錦松、卜惠淑、南宮仙、金愛順、韓銀珍、高永蘭、閔英華、金映玉、南宮蓮、朴貞淑、李瀾賓、元點淑

演出延鎬年、裝置 金一影

三十一日부터晝間에만 拾錢均一 스劇場第一回 午前十一時부터五時까지四回連續 朝日世界ニュース及北支事變特報 讀賣ニュース及北支事變特報 東劇ニュース의大放送 漫畫 카ー툰의 베테이의석겨크스 漫畫 今世의로빈손크로ー소

◇七月二十七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英國B・I・P社超特作日本版!! (三大特作名畫同時上映) 스파이 戰爭劇 祖國を護る者 監督…아ー사ー우즈氏 主演…크렛타낫시孃 갈·데일氏

◇메도로포리탄超特作全發聲 海洋活劇 南海の脅威 쫘ー지·오삔氏 호랑ー크·윌손氏 大死鬪活躍版!!

◇マキノ超特作全發聲版!! 時代劇 赤垣源藏 監督…牧陶六氏 主演…澤村國太郞氏 雲惠履氏

桃花劇場 電(龍)一二二三番

七月廿七부터廿九日까지三日間短期上演 開演時間 午後一時半 七時半 劇團 青春座公演 第五週 名劇『愛怨十字路』宣傳週間!! ▲上演劇本▼崔獨鵑作

『어엽분바보의숙엄』一幕二場 이세상을즐겁게살녀고애를쓰다가 무참히죽어가는어엽분바보의 의절과타락 … 거기에는人生의 弱點을가장깁히파고드려다보아 만물수잇는식업悲劇이올시다 웃어는傑作篇!

林仙主作 『봄눈이들때』二幕六場 래년봄이오면행여나自己네形便이 나어질가하든것이오는봄 이면도그들이기다리든봄!새싹이움 트는 그날그날을속아살든그들!

東洋劇場

七月廿七日ヨリ 三十日マデ 四日間 (階下一般十錢 階上二十錢均一)

コロムビア超大作連續映畫

名犬馬 神 レツツの スク復讐 主演 ジンチンケン號 ツスクレツ號

第五·六·七·八篇 全八卷

大都映畫超特作連續時代劇

近衛十四郎 大河百百代主演

疾風怒濤 全十六卷 中篇·後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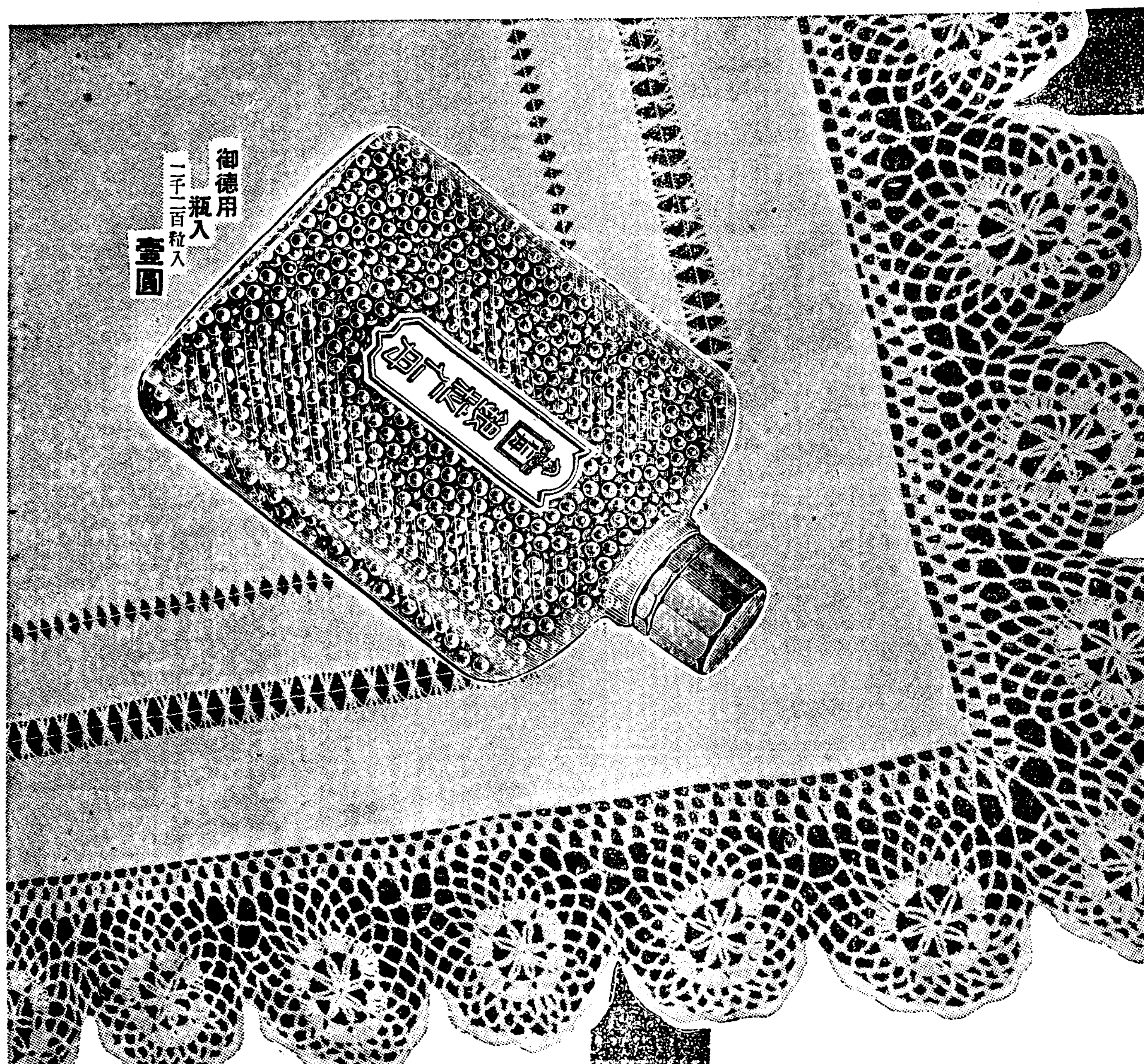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永樂町 三本 中央館 電話本局 二〇四

昭和の常識

軍隊의食事는一人一日分米麥옥合하야六合과副食物代二十錢으로、大量購入인故로 中流家庭의 食事에相當

日本一의健康兒는「早寢、早起、日光浴、粗食」等平凡한健康法으로생겨진다



仁丹

여름엔——特히

仁丹잡숫고

잡수시요 살지시요

더위에안지는
晴快한頭腦

요지음의불가튼볏과、찌는더위의連續은、마침내平素의健腦家까지도餅易하야、到處에頭痛의氾濫을보게되거니와、頭痛은諸病의併發을豫防하기爲하야서도곳治癒해두지아니하면안됩니다 이러한때、仁丹을먹으면頭痛의原因인腦鬱血을가장完全히그러고도速効로써消退하고대번明澄히恢復합니다

무엇을먹거나
迅速한消化

그러지안하도弱해지기쉬운夏節의胃에더위가더러더러甚해저서물과어름을먹는結果는、消化液을稀薄케하야食慾不振에빠지고夏瘦도되어抵抗力을일코、諸病이跋扈하는요새가가장危險합니다不斷의仁丹常用은消化의分泌液을旺盛케하야胃의消化機能을促進、粘膜을强化하는故로消化는不期而短縮食慾을益益旺盛케합니다

疲勞를解消하야
漲溢하는元氣

四肢가따분하야곳疲勞키쉬운夏節을、元氣잇게 生生한生活을하자면 어떠케할가——于先、그方法으로는仁丹을적어도每日五六回잡수십시요、무럭무럭솟아나는元氣는반드시終日의劇務에도견디어、爽涼滿喫의生活을슬기게됩니다

涼味가넘치는
爽然한口薰

끈적끈적한입、甚한口臭、이처럼不愉快한것은업습니다、特히接容對談의機會가잇는때에는一層注意가不必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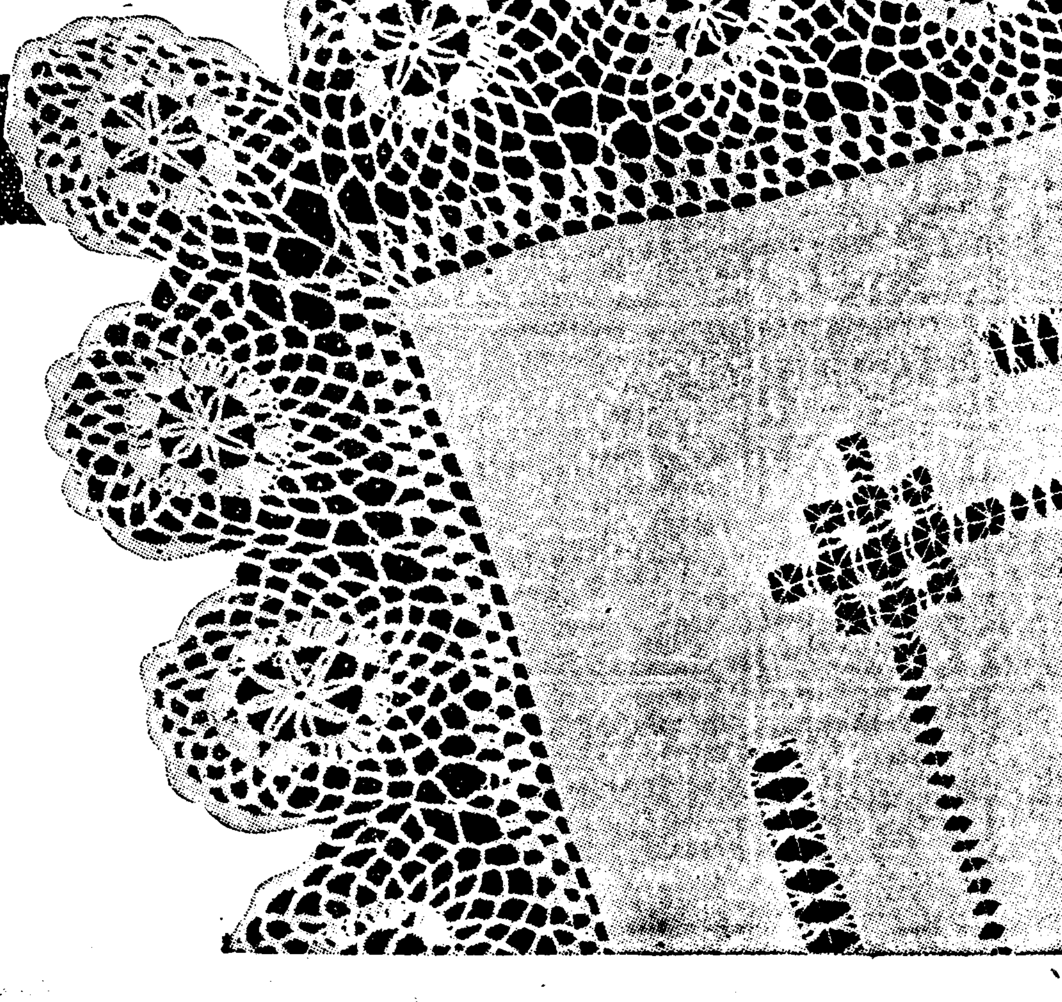
此際에、포켓트의仁丹을隨時隨處에잡수어爽然한口薰으로써臨하시는것은、夏節의禮儀로一層實行하십시오

只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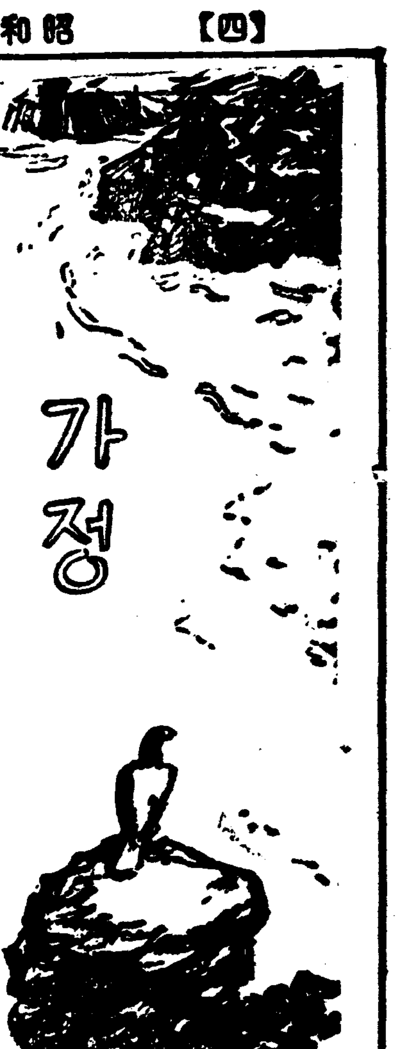
로ー스仁丹拾錢包(百五十粒入)에

美麗한**琥珀케ー스**漏落업시**添附**

(琥珀容器擴大圖)



001527



가정

눈섭모양에따라 얼굴이달러보여

분바르기보다도더중한근본문제 성스격까지틀려보인다

요즈근래에와서 집짓는것이며실내장식이며…하는 것이 모다단순화해저서 객적고거치장스러운것이업는데에『아름다움』을 늣기게되엿습니다만 의복이라든가 얼굴의 표정 화장도역시 복잡한것을피하고 간단하게 정돈식히는 경향이 현저해젓습니다。

특히 눈섭의형상으로 말하면 얼굴의표정을 좌우하는힘이 강하기때문에 이것을 요령잇게잘 그리고 못그리는것은 화장의잘되고못되고보다도 더한근본적문제가되고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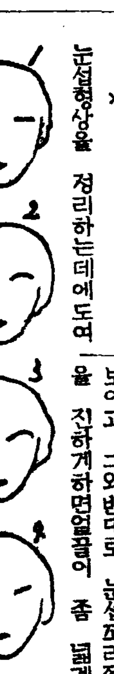
◇

눈섭근처는 소용업는 잔털이 만히나기쉬고 또 그객적은 잔털이 눈섭의 발달가튼 형상을 흐리게해서 좀천격으로 보이게합니다。그러타고해서 늘면도칼로 가장자리를 미는것도문제인데 왜그러냐하면 깍근자리가퍼러케되는데다 굵게수자라고 또딱딱해서 부자연스럽게보입니다。

×

그럼으로 눈섭을 정리하는데는반드시 털을뽑는것이 낫습니다。그리고 얼굴의 뒤되미를보아서 위로뽑힐까 아래로 처드릴까를 결정한다음에 뽑아야합니다。즉이마가 좁은사람이나눈과눈섭간격이 너무넓은사람은약간아래로 나려가도록 위를뽑고그와반대로눈과눈섭사이가 좁은사람은 아래를 뽑습니다。엇잿거나눈섭아래에 객적은털이 남지안토록 해야조흔데 그러케하면 얼굴전체가훤해집니다。

×



눈섭형상을 정리하는데에도여러가지가 잇습니다。그림과가튼네가지 전형적인 모습에따라말한다면 (1)은점잔코 (2)는녀성적인온순한기분이잇고 (3)은유감적이요 (4)는 애교잇서보입니다。어느편을 선택할것인지는 얼굴의모습、직업에따라결정할것인데 특별한 처지가 아니면 타고난 그형상에서 별로틀리지안케하는것이 조흡니다。

×

또눈섭에는『악센트』라고할까 어데를 진하게하고 어데를엷게한다는것이 중대한것인데 양미간쪽을진하게 강하게하면 신경질이요 얼마쯤 마서운기가잇서보이고 그와반대로 눈섭꼬리쪽을 진하게하면얼굴이 좀 넓게보이며 승거운사람처럼됩니다 이것도 물론정도문제이니까 자기의 얼굴에대해서 연구를거듭하는것이 조켓지요

엇잿든 눈섭의 객적은잔털을그대로두는것은 요즈음미용법의제일조를배반하는것으로 아라야합니다。

이만것은아라둘일 체온게에대한지식

오래묵은것은대중할수업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병이만흐니까 자연 체온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체온기 그자체가 고만틀려가지고 공연히 깜짝놀래는 수도잇습니다。체온기에 대한 상식을 가지지못한면 그역시 현대인안악네로서의 커다란 수치스거리가 되지안흘수업습니다。

(一) 처음 사서는 정확하다가도 차차 시일을지날수록 틀려가는것이 잇습니다。그것을 경년변화(經年變化)라고 하는것으로 어떤이는 애초에 유리관을 가공(加工)할때 잘못되얏든것이 차차 시일을지나서 회복되기때문으로 그관속에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도 하고 도어떤이는 유리에서알카리 기타기염류(鹽類)가나와서 그러케 변화되는것이라고도 합니다。

(二) 삼십초에 재어지는 삼십초계 일분에 재어지는 일분계 오분에 재어지는 오분계등이 잇스나 그 정한 분초로만은 그래도 대중이 안서지 안하는만큼 오분계를 적어도 팔분이상은 너헛다가 끄내야 합니다。그리고 집어너헛다가 다시 뽑아서 보고너흔때는 새로너흔셈을치고 시간을계산해야 됩니다。

(三) 보통은 겨드랑어 아래에넛는데 땀은잘씻고 수은은 흔들어서 밧작 나린뒤 그끄치꽉 겨드랑이속에 닷도록 너허야합니다。사용한뒤도 수은주는도로 흔들어나리고 갑에집어 넛는데 전염병 환자에게 쓴 때는 반듯이 알콜을 탈지면에 칠해서 어래우를 전부 소독해야 합니다。

(四) 너무 고열이 되면 고만 수은주가 끈허지는수도 잇스나 그것은 잘해서 다시부를수가잇습니다。그러나 다시부른뒤 곳 뒤흔들어서는 도로끈허질우려도 업지안습니다

기풍선

"잘못쏘이다간 큰일나요" 바로쏘이지말고、잠깐만

정 더운때 선풍기를 쏘이면 잠시간 시원한 것은 사실이나 오래스동안 잇스면 아주 불쾌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 애기들에게 오래스동안 선풍기를 대어주다가는 의외로 고만 생명까지 일허 버리게 되는수도 업지 안습니다。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인공적(人工的)으로 일어 나는 그 바람이 공기와 합치어 일종의 압(壓)을 이루는 까닭에 호흡(呼吸)이 곤난케 되고피부와혈관(血管)이 팽창하야 진데다가 찬바람이 자극하야 땀이 제대로 나지안흐니까 기분이 조치안케되는 것이랍니다 그중에도 피부가 약한사람이나혈압(血壓)이 나즌사람에게는 금물이나 몸을통벗고 쏘이면 몸이 무겁고 오래 쏘이면뇌빈혈(腦貧血)이 되야 버립니다 만일 쏘이려면 띄워를 좀드러가지고 멀도 씻고 천천히 쏘이는데 그것도 오분내지 십분쯤으로끈허야지 더오래 가서는 자미가 업습니다 땀을흘린뒤나 목욕을한뒤나 또야버레 다니다가 돌아와서 즉시 그것을 쏘이는것은 애초부터피할일이요 어린 애기네는어

때한경우를 들로하고 대어주지안는것만 갓지오흘것입니다

家庭醫事 관절염이도저

문 저는이십팔세의 청년이온대 약십년전부터 무릅이쏘고아퍼서 옥도가리를 복용하엿읍니다 그러나일시적효과는 잇스되 때때로 재발합니다 한절기나피곤한때는 더심합니다 한방의는 담의라하오며 양의는관절 류마티스라고합니다 피와오줌에는이상이업다합니다 무슨병일가요?

답 혈액과소변검사에는병적원인이업다고요 일반체질은 어떠합니까。또는두무릅관절만 그럿습니까 십년전부터 그러타하오니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면 그간에 다른고장이 발생하얏겟지요 그러나 그러지장이 발생치안흔점으로보면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기어렵습니다 체질이 약한관계로 그런것갓습니다 칼슘옥도(沃度)제등을복용하든가 주사를 하여보시고 또는기리가장제등을 사용하여보시지요 (醫師 林英來)

우리차지

파리

『너가티 못난놈 너가티 약한놈』하고 토끼가 파리를놀려대니까 파리가 픽우스면서 『그럼 나따라 오너라』하고 압장서서 가더니 호랑이이마빽에안저서 『어서 이리와』햇습니다。토끼는 호랑이가무서워 그만 다라낫습니다。

(글쓴사람 권윤세)

성병에대하야

부끄러워시속히치료할일

⑥ 城大皮膚泌尿科 鄭槿陽

이러케 부시럼이나고 몸에발진이 생길때까지 적당한 치료를 바더이병을 근치시켜버리지안흐면 병독은 몸속기피 잡복하야 버립니다。이것을 잡복매독(潛伏黴毒)이라고하며 때때로재발되는것입니다。이러한 잡복시기에 잇는것을 모르고 완치 되엇다고생각하고 잇슬동안에 세월이 지나는데따라 병은 단지 피부나 엽막에 국한되지안코뼈 내장 신경계통을 침범하게되며 여러가지 임상적 증상을 어르키게 되는것입니다。이것을제삼기매독이라고 합니다。그리고여기서 더나아가 중추신경계통에 병독이 미처 정신병이 되는것을 제사기매독이라고 합니다。지금까지 이야기한것은 후천적으로 어든매독임으로 이것을후천적매독(後天的黴毒)이라고합니다。이와반대로 선천적매독(先天的黴毒)이라는것이 잇습니다。어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배속에 드러잇슬때에 어머니가 매독에 걸렷기때문에 그병독이태반을 통하야 태아에게 전염되야 출산할때부터 몸에 어병독을 가지고 나오는것을 이릅니다。부모의 죄로서 애매한어린자식에게까지 이러한 무서운병독을 갑흡시키는 것입니다。무서운죄입니다、안되겟습니다

×

나는 이글중에서 성병이라는 것은 어떠한것이며 더욱이 우리들이 이종류의병에 대해서 떠한태도를 가저야하겟는가를 말하고시펏든 것입니다 다시간단히 말씀한다면 이러합니다。우리들은、성병에 걸리지 안허야 하겟습니다。성병예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잇겟습니다。그러나 하나도 완전한바이업다고 할수잇습니다。가장완전한 예방법은 그러한 아름답지못한 행위와 멀리하는것이겟습니다。위험지대에 우리귀중한몸을 내던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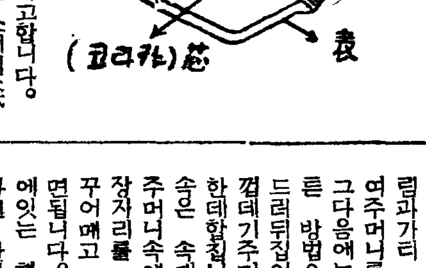
그러나 만일 이러병에 일단걸리면 열성을가지고 그릇된수치심을 버리고 떳떳한 태도로끗까지 그병의 완치를위하야 부단히 노력하라는것입니다。그리고 제삼자로서도 성병환자를 대할때에 처음부터끗까지 경멸하는 태도를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결코 그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뿐만은 아닙니다。일시적부주의와 불운으로써 그러케되엿다고 생각하고 널리 용서하는 태도를가저야 할것이겟습니다。

맨들기어려운 핸드빽

그러나요령만알면 비교적쉬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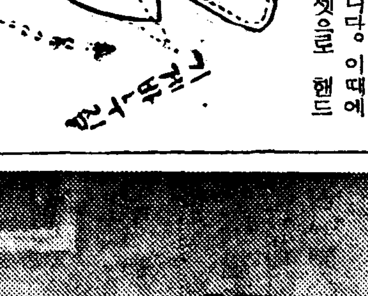
핸드빽맨드는 비결을 말슴드리겟습니다。물론이 조흔지면에 충분한 설명을 드릴수업스나 지갑이나 다른손가방을 맨드러보신분에게는 참고가될줄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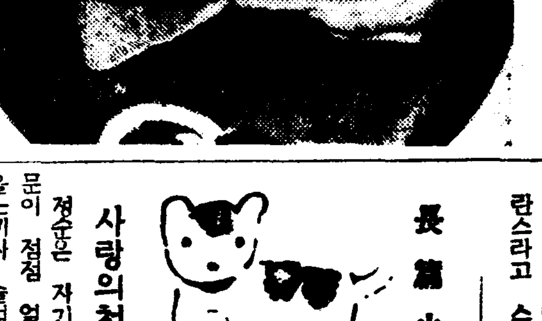
손가방이고 양주머니중에서도 어핸드빽맨들기가 제일어렵다고하는것인데 보통사람이 젊은날짜에 그요령을 다알게되거는 어려운이며 전문적공예가라도 재법손속이나게 되자면 이십년은 걸려야 한다고합니다。그핸드빽속에넛는 조이심지(紙芯)을넛든 기술만해도 삼사



변해야 그럴드시된다합니다 이러코보니 핸드빽맨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것인가를 아실것입니다。그러나 그러타고해서 보통사람으로는 손도댈수업는 것이나하면 그런것도아닙니다 다음의요령으로 맨드러보시는것도 조켓지요

몬저 두장의 본세(型紙)를 도화지가튼 조이로맨듭니다 이두장의 것쪽본세로 것감을마르고 안쪽본세로심지(芯地)를 마릅니다。심지는 조선백지 조이도 조흐나 캬라코가 가장 조타합니다 그리고는 가장자리에 풀칠을하고 것옷안으로 접어 인두질을 해서부칩니다。이때에 둘이나 혹은 셋으로 핸드빽어 점회자리는 것감을약간잡아느리듯 시프게해야됩니다(그림을보십시요)





그다음에는 그림에점선(…線)을그린 A부분의 심(芯)을 남자양복웃저고리속에 넛는베심)부치고 것껍데기의 가장자리를 풀칠해서 안쪽심지에 접어부칩니다。그리고는 그림과가티 접고 재봉틀에바여주머니를 뒤집습니다。그다음에는 대체로먼저와가튼 방법으로 속주머니를맨드러뒤집어서 사진과가튼거껍데기주머니와 속주머니를한데합칩니다。즉것튼것대로속은 속대로된것을 속을것주머니속에 쏙집어너코 가장자리를 실이 잘안보이게꾸어매고 또쇠장식을 해달면됩니다。이러식으로 사진에잇는 핸드빽따위를 맨든다면 한로한개는 문제업습니다。

수영이보건상조흐나 자칫하면 중이염에걸려

귀속에물이드러가는것이장본

해염은 건강상 배상히 조타고 하지만은 자칫하다가는 중이염(中耳炎)가튼것을 어르키게 됩니다。그래서 평소건강한 사람으로서 도리어 그중이염을 어더 가지고어주열동안죽을고생을 하는것은 물론이요 만성(慢性)이되는 날에는 두고두고 귀찬코 성가시게 되는것입니다。

그러테 해염으로 해서 중이염을 어르키는 경우는 두가지가 잇습니다。물이나 조금만무엇에 엽여나 코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귀로들아와서 병을이르키는 경우와 물이 직접귀로 들어와서병어되는경우입니다。

중이염이 되면 맨처음 귀속어 아퍼서 어젼 열이가의심할동안에 선열이 오르고 구역이 나고 귀가 나고 헷소리를 하게되야 매치 뇌막염(腦膜炎)과 가튼증상을 어르킵니다 어런 경우는 될수잇는대로 안정하게 누어고 귀에 온습포를하고 방안을 서원케하고 파리와 모기를 못오게 내쫏습니다 만일 정히괴로워해서 잠을 못 잘때는 의사와 의논하고 최면약을 주는것이 조습니다

그러케 이삼일 지나면 보통으로는 어픈게 좀 나허지고 또다시 그러케 어주일을 지나면 깨끗이 낫는데 조금 부주의하다가는 천공성(穿孔性)이나 만성으로 넘어가게됩니다 그러니까 체다 낫기전 조금 병증이 가벼워 전다고 무리를해서 해염을 치거나험든 동작을 하야서는 결코안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아픈것은 단지안해도 귀분이 셰를쾌쾌지며 갑자기 귀가먹어버리는 수도잇습니다。그것은 귀지가 귀스속에가득한때 겨기물이들어 가거나 고름이 생기어 고만통통붓어 가지고 귀를막어 버리는 까닭입니다。그러라고 그것을갈자거 끄내려다가는 오히려병을터칩니다。의사에게가서 뽑아내는것이 제일입니다。그뿐어어니라 해염을 치기전에는 반듯이 귀를후벼내야합니다。해염뿐이 아니라 애기네를씻길때도 귀스속은 소제하는것이 조습니다。그러고 해염을칠때는 솜을 뭉뚱 뭉처서 와세링을 발러가지고 두귀를막는것이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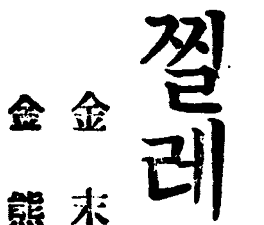
혹은 솜에다가 철을바르는때 그역시 무방하나 와세링이라야 조습니다

(※※※물……의……정※※※)

전기나는사람

『프라그』시에서는 요사이전기사람이 발견되야 모두들떠드는데 그당자는 루돌프라고 나이 설흔다섯된 청년과 후란스라고 스물하샷된 청년으로서 두사람이 가튼 철공장에서 일하고잇는데 어쨋든그 두사람은 몸에 전기가 잇는 모양이라 라디오수화기(受話機)에 손까락만얼씬하는 때는 전지(電池)가 업시도 확성기(擴聲機)가 울러나오고잇다고

長篇小說 찔레꼿 【89】



金末峰作 金熊超畵

사랑의처도(十)

정순은 자기맘속에 이러난파문이 점점 얼굴로 옮아가는것을느끼자 슬적얼굴을 도리켜버렷다。

『참정순씨! 그럼 지금곳 차좀내오라고 일러주어요』

하고 경애는 이형을든채 민수가 안저잇는 교의뒤에서서 정순을 바라보고 방그래웃는다。정순은 고개를 까닥해 보이고 문을닷고 나오려는데

『이봐정순 가는김에 과자좀 가저와요』

하는소리에 정순은 문고리를잡은채 잠자코 서버렷다。경애는 차단스를 열터니 과자상자를 두어개꺼내서 정순에게 안기워준다 들다란 과자상자를 안고 복도로 도라나오는 정순의 긴속눈섭에는 하ㅡ야케 이슬이매치엿다。

주방으로가니 물은벌서 끌러잇다。하인이 만들겟다는것을정순이가 손수차를만들고 과자도 정성것 모양잇게 접시에담엇다 단지 이경우에 정순의맘에 크나큰 걱정은 차잔을멧개나 내갈것인가 하는것이다。단두개만 가저가야 될것인데 그러타면너무도 자기의감정을 폭로하는것이되고 또 자기것까지 셋을가저간다는것은 아무래도 쑥스러웁게만 생각이되고、

그는 차잔을 네개를내노핫다 그리고 하인더러 이층에 잇는 경구를 경애방으로 오도록 전갈을하라 명하엿다。경구까지 네사람이 가티차를마시면 비교적 모가나지안흘듯 한때문이다。이욱고 차가다되여 정순은 손수쟁반에다 차를담어가지고 경애방을향하엿다。막경애방문아페서 똑똑녹크를 하노라니까 뒤에서 뚜벅뚜벅발소리가나며 경구가가까이 오는것이보엿다。정순은 한손으로 차쟁반을안고 한손으로 문손잡이를잡고 문을 여는순간

『이리주십시요』

하고 경구가 얼른 차쟁반을 아스며 문을열어준다。

『자 드러가시지요』

하고 정순을압세우는것이다。경애가 갓다주는 인형을 품어나안고 무어라고 우스며 말을하고잇든 민수는 경구와 나라니 드러오는 정순을 보자 이집—조와하지는 절대로 고맙지안흔 사람의 집으로 차저온자신이 후회스러웟다。경구가 달려와서 내미는 손을 마조잡으면서도 민수는 자기를 똑바로 처다보지못하는 정순의태도가 쓸쓸하엿다。

『차잡수서요』

하고 경애가 차그릇을들어 수아페 놋는것을 물끄럼이 바라다볼뿐 멍ㅡ하니안저잇는 정순에게

『차드십시다 안선생님』

하고 경구가 정순을치어다보고 빙그레우스며 차잔을잡는다。

『오빠! 민수씨가 조금전에 정순씨와 단둘이 만나신다고전화를하시는걸 내가 이리로오시라고 떼를썻거든요』

경애가 무슨큰 사업이나한듯이 신이나서 재잘거리는것을 경구는 별로웃지도안코

『두분이 만나서서 조용히 하실이야기가 게실지도 모르는데…』

『글세 이방에서 하시라고 그랫조 우리차먹고 오빠하구나가면 그만안야요?』

하고 동글동글한 과자를 민수의접시에 집어놋는다。이욱고 차가끗난다음 경구와경애가 도라나가고 정순과민수만 방에남게되자

『바쁘기도하고 위선 간단히이야기를합시다』

하고 민수가 말을시작하엿다 정순도 되도록 침착하게

『네—무슨말슴이던지 똑맘에잇는대로만 들려주서요』

『나는 이러케 말하고십습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던지 자유의사로 서로 사랑을주고받는것이요 결단코 무슨 자선사업이나 시제를하는것처럼 동정이라던가 미안한맘을 가진다는것은 서로를 모욕하는것이되니까요 아시겟습니까?』

『네—』

정순은 입술을 꼭깨물면서흘러내리는눈물을손등으로씻섯다。

『그러니 말입니다 언제든지당신은당신 나는나 자유의사대로만 행동하여야 될것을 또한번 인식하여야합니다』

『민수씨! 그것이 오날당신이제게하시겟다든 말슴입니까?』

정순의 음성은 원망과슬픔으로 떨리엇다。

『그럿습니다 연애는 자유입니다 누구에게 지배를밧거나눌려서 이러니저러니 주저를하고 수학문제처럼 연구를하고……난 본래 하늘러든성격은싫여 하는 사람이니깐요』

정순이가 무어라고 대답을하려는데 민수는 벌떡자리에서 이러섯다。

『난 좀바뻐서 가보아야겟습니다』

『민수씨! 너무도 너무도』

정순이가 민수의 한팔에매여달렷스다

『왜 이러십니까』

민수는 가벼게 정순을 떼다밀고

『지금이야말로 당신이나 내가참으로 자유연애를 하고잇는지 아닌지를 알아볼기회가오지안핫습니까?하하하』

웃고 복도로나왓다。문소리를듯고 저편에서 경애가달려오며

『벌서 이야기가 끗나셧세요?』

어린애처럼 벙그레웃고

『준비되엿든 업지만 식당으로가서 저녁진지를 가치하십시다 네?』

하고 민수의한팔을 붓든다。얼골이 햇숙해서 경애방에서나오든 정순은 민수와 경애의뒷모양을 바라보자

『흥!』

하고 코우슴을치고 다름질로자기방으로갓다。

第2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九月十七日至廿六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畵科 ▲西洋畵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申請及搬入—場所는 本社事業部期日은 自九月十日至十日間搬入할것
出品規定—本社所定의申請書指定用紙에 各項을明細記入하야 作品과함께申請書搬入場所로提出할것이며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 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目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明記할것

賞褒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五十圓 /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二十圓 /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十圓
特別褒賞(朝鮮日報社長賞) 百圓 各部各科營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認하는作品一點에對해서 本社社長이授與함
▲入選作品中에서 左記三級의入賞作品을決定하야 正賞으로賞狀을授與하는外에 또所定의副賞이엇슴

◇主催 朝鮮日報社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 七月二十七日부터 納凉朝鮮映畵大會! 春香傳 監督 李明雨 錄音 中川堯史 文藝峰 韓一松 主演
京城撮影所特作 東亞日報社連載小說映畵化 原作 脚色 尹白南 主演
大盜傳 監督 金蘇峰 撮影 李明雨 金連實 金貞圭 李錦龍 玄舜英 李素然 大共演
其他 天然色漫畵、뉴ー스
新舞臺劇團 藝苑座大公演 空前의大規模! 無比의豪華陣으로
黃金町 電光二九五 優美館

7月21日より25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京日ニュース	1130	307	700
明朗色時代	1150	327	720
北支事變ニュース	119	456	855
神秘は男	142	519	918

明治座
廿八日ヨリ五日間 每日午前十一時半始映 各席全部 大人學生三十錢 小學生二十錢
日活京都特作 大城龍太郎主演 自雷也小僧 (電光解決篇)
ユニバーサル特作日本版 銀翼の戰慄
日活多摩川特作 中野かほる、中田弘二主演 新版 護國の母
大每國際ニュース

全鮮第一封切 黃金座
◇七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祝祭日은晝夜三回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映 밤七時부터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二大特撰名畵大會)
◇와너사쇼날超特作日本版! 爆笑喜活劇 幽靈드라ー다ー 監督…레이엔라이트氏 主演…조ー·E·부라운氏 助演…추ーL·도라비ー스孃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活劇 세이룸의娘 監督…호랑크로이드氏 主演…로렛드·영 구레데…
◇마키노超特作오ー르토ー키映畵 時代劇 妖術白縫變化 監督…牧野方氏 主演…原駒子·葉山純之輔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六七七番 新富座 七月二十八日ヨリ四日間 晝夜三回大人五〇學生小人三〇

若草劇場 冷房完備
1	歌ふ彌次喜多 (京大阪の卷)	11·10	2·45	6·40
2	大每·北支事變ニウス		3·45	7·40
3	江戶家 描入實演	12·20	4·05	7·50
4	札つき女	1·00	4·45	8·30

(一) PCL東寶新喜劇JO作品明朗時代音樂篇
(三) 萬ん物の鳴く描入鮮北支皇軍慰問の歸途突如來城實演
(四) ベツトデーブイス主演W·B作

本社京販 電(本)一五九七番

近代名僧小列傳 ⑥

湖岩

傑僧休靜

休靜의出世는 明宗七年僧科의及第에 잇스니 이로보면普雨의功도 적지안흠을 알것이다。

休靜의字는 玄應이오 號는淸虛堂이며 妙香山에 久住함으로써 西山이라 일키른다。俗姓은 完山崔氏로中宗十五年（一五二〇）에安州서 出生、宣祖卅七年（一六〇四）妙香山圓寂庵에서 入寂하니 壽가 八十五이다。

休靜이十歲되기前에 父母를俱失하고 孤獨히 자라나다가 그後에 邑倅를 따라 서울로와서 成均館에 드러갓스나 그工夫가 뜻에 不滿하엿다。이에同學數人과함께 南으로智異山에 遊覽하고人生의無常을 느끼며 削髮爲僧함에 이르럿다。七八年동안에諸內名山을 遍踏하고 三十에禪科及第、大選으로 마츰내 兩宗判事에 陞進하엿스나 곳印綬를 푸러더지고 金剛山으로 도라와 有名한三夢詞를 지엇스며또 香爐峰詩를 지으니 이들의詩는詩로서도 飄逸奇警하야 人口에 膾炙하는바이니다。

와 休靜은 [illegible]하고 [illegible]을 갖추되 [illegible]는 [illegible]하야 群小의[illegible]하는[illegible]엇다。宣祖廿二年 鄭汝立의 逆獄이 일어나매 妖僧無業의 誣告로休靜도 逮捕되엿스나 宣祖께서 그寃을 아시고 即時釋放함새 御畫의 墨竹을 下賜하시고 그에게 賦詩를命하시니 休靜은 곳 瀟湘一枝竹。聖主筆端生。山僧香熱處。葉葉帶秋聲 의 五言絶句를 지여 奉進하매 우로서도 역시 그詩에 和答하옵서 葉自毫端出。根非地面生。月來無見影。風動不聞聲 이란 一絶을 下賜하셧다。이로보면 宣祖께서休靜을 얼마나 寵愛하셧는가。後日에가서 그가 王事에盡瘁함이 決코理由업는배 아니다。

休靜의功績

休靜은 佛敎史의 功績도 적지안커니와 그보다도 政治上의 功績이더클것이다。宣祖壬辰에大寇가 西로밀려 [illegible] 休靜이 香山에서나와 大駕를 迎謁하거늘 休靜다려 下諭하시되 世亂이 이와가트니 네가可히 弘濟할수잇겟느냐。休靜이 泣拜하며 勤王하기로 盟誓하고 八道十六宗都總攝이 되엇다。오늘날말로는 僧軍總司令官이다。

休靜은 各寺刹에 命하야 老病한僧侶는 焚修에 從事케하는同時에 壯健한僧侶는 編入케하야五千人을 어덧다。

그리하야 그는 五千僧軍을 거느리고 明軍을따라 平壤戰에서勝捷을 博하엿다。平壤[illegible]

[illegible] 大駕가 [illegible] 還都하엿거니와 休靜은 數百騎士로 大駕를 [illegible] 는 當時거의 年垂八十이라 氣力이 衰耗하므로 [illegible] 하야 軍事를 그高弟惟政（松雲）과 處英에게 물리고 [illegible]의印綬를 返上한後 飄然히 香山舊寺로 돌아갓다。

이때明將李如松이 休靜의 偉功을 賞하야 詩를주어갈으되

無意圖功利。專心學道禪。今聞王事急。總攝下山巓。

休靜은 이로부터 그名聲이 크게떨쳣스며 慶流、權臣、妙香諸山으로 往來함에 따라다니는僧侶가 千餘人이엿섯다 하거니와 五百年동안 法俗兩界를 通하야 休靜처럼 一般人에게 崇仰을 밧는이는 업슬것이어다。

學藝

朴燕岩의藝術과思想

그의生誕二百週年記念 (4)

洪起文

그러나 燕岩의 偉大한 點은 그文學에만 엇는 것이 아니라 그보담 몃倍 더 만히 그當時에 잇서 가장 嶄新하고 卓越한 그 思想 에 엇는 것이니 設使 그의 思想을 村學究式의 군두럭으로 적바람 하야 노핫다 고 하더라도 몃百年뒤의 後進으로 하야금 옷깃을 며미고 읽지 아니치 못 하게 될 것이다。文學에 對한 燕岩의 視角이어째서 그와가치 통드게 되얏는냐 하면古文家의 모든 禁斷미테서는 到底히 그의思想의 自由로운 表現을 엇지못하얏든 까닭일는지도 모르나 文學에對한 그의超逸한 見解와 眞摯한 態度가한거름 내키어 모든 事物에까지 銳利한 觀察과 深刻한 思索을要求한것이라고도 생각치 못할것은 업다。何如튼 燕岩은單純한 古文家만이 아니다 朝鮮思想史에 잇서서도 커다란 地位를 占領한다。

（一）兩班傳에 잇서 不合理한兩班制度를 그는 실컷비웃겨니와 擬通嫡孽疏에 잇서 그는 다시 嫡庶差別의 有害無益을 痛論하얏다 이며 班常과 嫡庶를 이러케 보는 그어니 老少南北의 黨論을 탑탁하게 생각할리는萬無하다。會友錄序에 百里人들이 드물고 千戶邑이 업스니 그 땅덩이 좁건만도 녯날의 楊墨老佛도 아니면서 議論이 네갈래요 녯날의 士農工商이아니면서 名分이 네 갈래라고 그는 噓唏咳歎을마지 안하얏다。議論의네 갈래란 即老少南北의 黨派 요 名分의 네갈래란 兩班의 嫡庶와 中人 常民의 層이다。

（二）仁義禮智와 孝悌忠信을看板으로 내걸고 阿諛度世하는 所謂 儒者의 무리들을그가 얼마나 미워 하엿다는것은虎叱文中 儒者鞭北의 一句로만도 넉넉히 斷斷할수잇다。범의 말을 빌어 그는 儒者의가진罪狀을 다 폭로시키고도猶嫌不足하든지 범의 어런獸胃에도 强硬滯澁의 不消化物이라고 돌리어서 儒者의 갑슬 一分도 못 되게 떨어 트리엇다。許生傳은 當時 爲政者의 無打算 無計畫을 解剖한 것이요 馬駔傳은 世人의 友道를 嘲笑한 것으로

直接 儒林을 對象한 것은 아니로되 모도다 同工異曲이다。단지 遺憾되는 바는 十傳中 易學大盜傳과 鳳山學者傳도 世降寶 孝崇飾虛僞云云과 入孝出悌未學爲學云云의 前提로보아서 相當히재미잇슨內容이엇슬모양인데 不幸히 焚棄되야 오늘날까지 傳치못는것이다。

（三）限民名田議는 土地의 兼併을 막기 爲하야 그 私有의 限度를 세우자는 것이요 金右相履素에게 보낸 泉幣議는 物價의 騰貴를 막기爲하야 貨幣統制를 行하고 銀貨를 鑄造하자는 것이다。이 두가지의 議論이 모다그의 創見은 아니로되 自家의 一家見을 세워 가지고 잇다。그外

備荒 을 爲하야 甘藷의 輸入을 도모하고 또 運輪의 便宜를 爲하야 車制를 硏究하는等 利用厚生하는 方面에 몹시 애를 썻섯다。課農小抄는 農家經濟의 文獻으로서 貴重한 材料를 이룰 것이다。

（四）그는 五行의 相生相克說을 餘地업시 反駁해 버렷스니 洪範羽翼序의 一篇은 純然히 그反駁으로 終始된 著作이다。『土用金이라니 萬物이 모두 金에서 나는데 何必 金이겟느냐 金生水라니 河海江漢이 그래 모다 金에서 된 것이겟느나 흙에도 젓어흘고（石乳）쇠도 [illegible]가 되니 나무만이 흙로서 생기지 안는것이다 쇠와 돌이 닥드려도 불어나고 벼락이 떨어저도 불이 나니 불이 나무에서만 생기지 안는 것이다 만물이 죽어서 모다 흙으로 돌아 가건만 땅은 더 두터워 지는 것이 아니어니 한 아궁지의 섭으로 어떠케 大地를 더햇다 덜햇다 하겟느냐』는 等 그의 理論은 素朴하나마 條理整然하다。

（五）天圓地方을 反對하고 地動說을主張한 것이니 그 熱河日記에 잇서 自家도明言히 말한바와가티 오로지 洪湛軒으로부터 바든 知識이다。

（六）朝鮮歷史에 對하야서도 相當한 創見을만히 가지 엇는 것이니 위선 平壤 浿水에 關한 考證만 도 그 한가지의 例다。

錬金術

隨筆的傾向

五墨子

作品이나 論評의 行動이 一般的으로 隨筆化해가는傾向은 임의 오래엿다。모두 十五錢에 두가지씩 時評種類의것어 盛旺한反面 한개의深遠한 學究的態度로된評論이 보어지안혀고 身邊的이요 少女讀物程度의小說이氾濫한反面하나의 雄大한計畫아래에서된 作品이出現치못한것도 모다 그것을說明하고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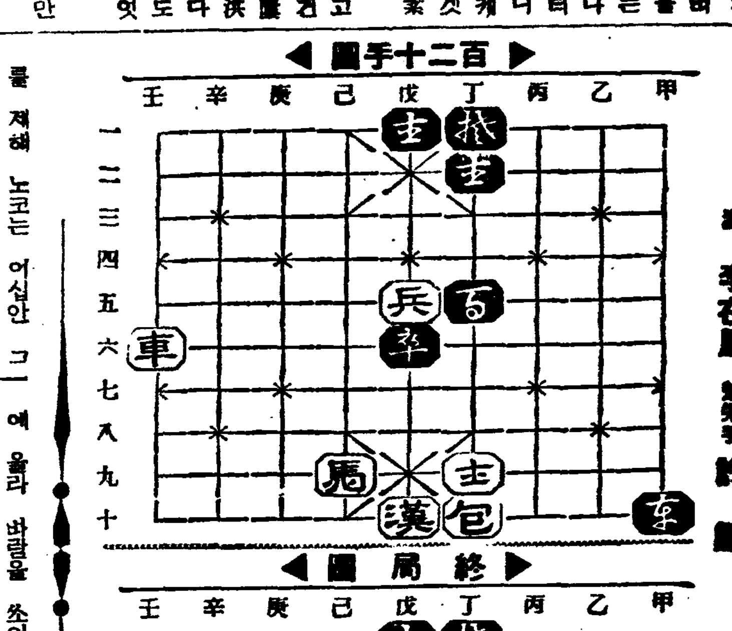
그리고 隨筆 自體는 眞로 隨筆以下의것으로 轉落하고마럿다。隨筆하면 으레히 봄이되엿느니 紅茶를 면잔먹엇느니 麥酒를잡섯느니 하는打鈴뿐이요 故鄕이 그립다느니 무슨書册을읽엇다느니 失戀을햇다느니하는 못난소리뿐이다。勿論 隨筆은 抒情性과若干의無氣力性과無責任性等을 特徵으로삼고잇스며 거기에는 보다만히 어지꼬잉어 橫行한다。그러나 그러케까지 體系도 理論도 結末도 업서서 조흔世界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現在 우리가 社會에關하야 무슨 進步的인 主題를못갓고 時代에對하야 이러타할積極的인 情熱을喪失하고잇는까닭일것이다。別다른道理와 삿는努力으로 于先 正當한隨筆의水準을 確固하게理解하고 그우에 作品과評論을建設해야할것가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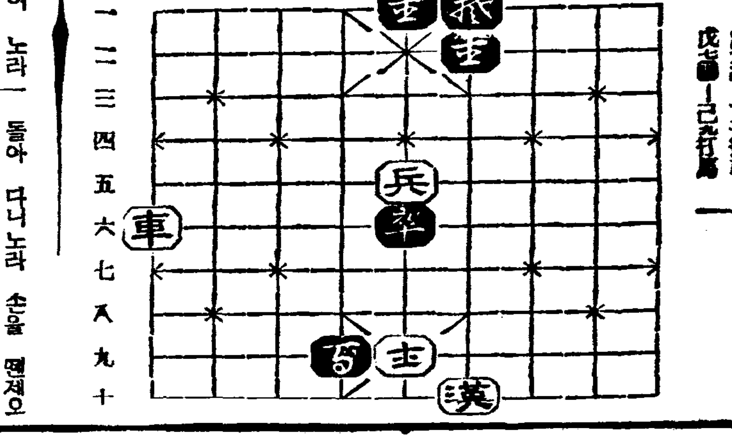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三十）

漢 李在鳳 楚先手 許 [illegible]

◀百二十手圖▶



◀終局圖▶



丁五[illegible]ー戊七
丁九士ー戊九 呼將
甲十[illegible]ー丁十 打包 呼將
戊十漢ー丁十 打車
戊七[illegible]ー己九 打馬

ー(끝)ー

一隨筆一 저녁때 ③

朴魯甲

저녁을 먹고 거리에 섯스면 마음을 소년들어 보는대로 나에게 저녁 먹엇느냐는 인사를 하여준다。

그들은 나에게 언사를 하고 나는 모를 소년들어 태반이엇다。그들중에는 상당히 장성하야 장가까지 들고 아들까지 며구에 나케된 사람도 잇스리라고밋는다。

그들은 다 예전 나의 글벗친구들의 자질이 아니면잘알수엇는 마을친구의 자질들이엇것어다。

나제는 들로 허러저 일하고 밤에는 끈한잠에 부들리여 서로 만나기 어려운 옛친구들을 생각하고 그자질을어 장성한것을 보면 나는내나이를 새삼스럽게 헤여보는것이엇다。

어느날 어떤 노인이 말말게재에 나의 나이를 물엇다 나의 대답을 드른 노인은

『허、자네도 늙엇네 그려!』하는 말을 들엇다。

물론 내나어가 늙은 나어라고는 나도생각 할리 업고 노인 역시 만다는 과장을우습 섯거 한말 일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노인의가벼운 몃마디의 한탄을 가볍게 흘려 버리지는 못하엿다

나는 아버지 돌아 가시기전 바로 몃달 전까지도、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젊으신 얼굴을 뵈옵지 못하고 아버지의 백발만을 뵈어온탓이엇든지、언제든지 노인의어들 여어니 하고 특별한 때를 재해 노코는 어십안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왓든 것이엇다。

가장 귀한 세월을 나는가장 헐케 쓰고잇지 안흔가도 시펏다。

그러나 여전히、한만한 생각이엇다。느러진 팔다리가 단바 고분 고분 해질리도업지 안흔가!

어웃 마을에 가장 부지런하든 노인이 한분 잇섯다。새벽 두시면 이러나 새끼를 꼬고 유십여세에 장정 두목의 일을 하면서도 놀아서 못쓰겟다고 마치 일만 위해난것처럼 일이라면 죽고못살든 그가 한 상사변전부터는 열쳐 일에는 맘이 업시 담배대만 물고 돌아다니는것이엇다。

『그 조아하든 일을 안코 어떠케 배기는가』 물으면

『체! 논밧 가대까지 그놈(자기아들)이 다 팔어 먹고 집까지 팔어먹지 안혓나! 그려고도 남은 벗이 수천량! 그까짓 빗이야 갑든 안갑든 새끼를 꼬려니 새끼 한뼘 꼴놈의 집이나 엇나!』

하는 것이 그 노인의 대답이엇다。영웅이 천하를 경영하는 것이나、구두쇠가 돈을 모으는 것이나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 것이나 그 목적을 향하야 성취하여 나가는 재미는 얼반일것이다 대소의차어는 잇스나 조건만대강 마즈면 어느날이다 낫터위를 참다 못하야 산등성이예 올라 바람을 쏘이어 노라니 건너마을 압 콩밧우에오륙십명도 넘을듯한 조합원이 열군들이 밧을 매고잇는것이 유표히 눈에 띄엇다。

알고보니 며울 야학당 학생들이 학당 경비를 어드려고 이틀째난 두레라는 것이엇다。

매 열직 끈게하다 부주히 돌아 다니노라 손을 면제오래인 그아학당어엇다 내 기억에는 오랫동안 이 야학당어 사라젓섯다。

아는사람은 알겨나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나 인생은 가장 가깝운 거리에서 가장필요한 경영을 계을리안코 잇지 안흔가!

納涼 REPORTAGE ①

夕陽에빗긴琴湖江

남몰래修業하는女人太公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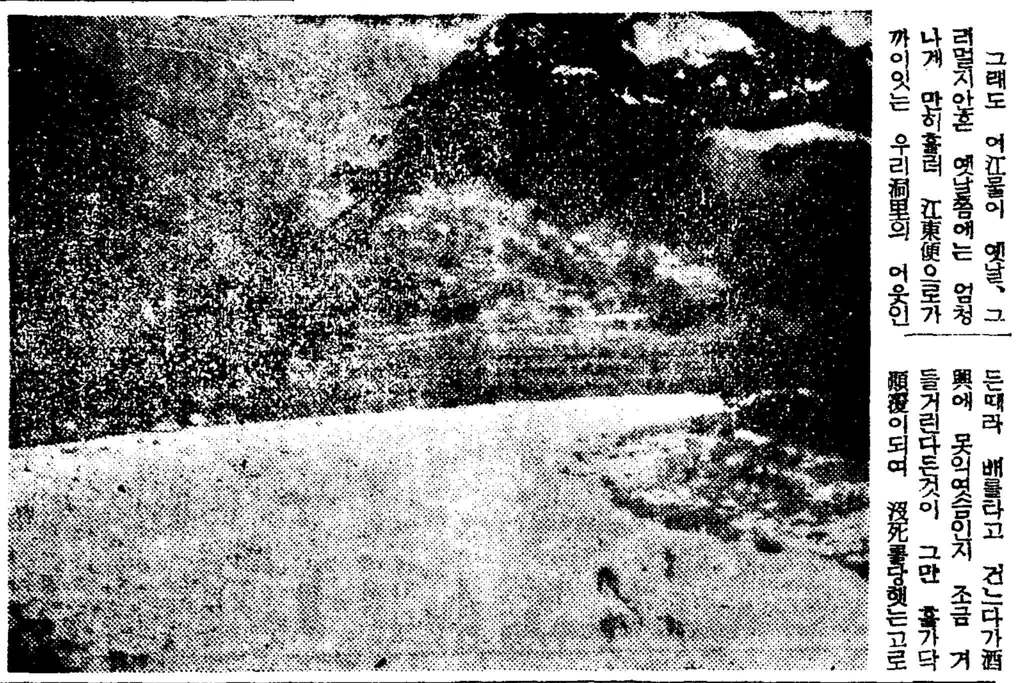
白信愛

朝鮮에도 第一가는 炎熱都市大邱에서는 第一가깝고 交通의 便利가잇는 納涼地는 琴湖江이다。『뻐스』로 東便을 向하야 卄分以內에 到達되고 또 그自然美의 豐富한 點은 眼界는 炎熱의 市內를 벗어나온 사람들의 心身을 함께 淸新케하고 남음이잇다。

昨年까지는 遊園地로 江岸에 여러가지 施設과 船遊로서 日曜 祝祭日에는 상당히 消風客이 만헛섯다。

지금은 琴湖江一帶의 護岸工事가 完結되며 泰山과가튼 『둑』이 東岸을 어루어 모든 遊園地의 施設이 堤防에犧牲을 당하얏슴으로 遊園地를 洛東江岸의 花園으로 빼앗기고 버들을 어여노올 늘어진 가지하나업는 맹숭맹숭한 짠디 언덕 아래로 江물이 제호자 심심하게흘으고잇다。

東海中部線이 廣軌가되고 堤防이 노파짐을따러 鐵橋는 깜아득하게 노피노히엇슴으로 江물은 鐵橋와 兩岸에 威壓되듯水量조차 줄은것가티보이며 나가티 물에들면 훌훌어리처럼 풀어저깔아안고마는 사람이면 몰으거니와 원만한 男子라지면 일부러죽고시퍼 허리츰에 물맹이나 잔득달고 빠지면 혹 알수업는일어다。그리고 往來가 빈번하니 救援의 눈을 버서날길조차 업슬러어라 漢江의뽄을바더『ちよつと待て』라고 써부칠수고는 업슬것것다。



(寫眞은 琴湖江의 一曲)

그래도 여江물이 옛날、그러멀지안흔 옛날쯤에는 엄청나게 만히흘러 江東便으로가까이잇는 우리洞里의 어웃인 梅南谷에서는 그洞里 人士 十餘人이 大邱로 놀러갓다가 돌아오는길에 橋梁이업든대라 배를타고 건느다가酒興에 못이엿음인지 조금 겨들거린다든것이 그만 흘가닥顚覆이되며 溺死를당햇는고로 그洞里에는 同日에 祭祀드는 집이 十餘家잇서 지금까지도 琴湖江의 威嚴을 傳하고잇기는한다。

護岸工事로 멀미아마 어련게 水量이적어 보이고 江邊에 느러진 방축하나 옥어진 술그늘하나 업시 비록옛날의 威嚴을 疑心케한다고는 할지라도 그래도 제이름이 제여름그대로 노피알린 琴湖江이니 江邊의 變化가 험이되를 얼마겟스며 水量이 줄엇슬들 제맛을조차 일헛겟나 도리어 헌을 자랑으로만듣지는 못할손가……。

果然 어깃자깃한 滋味성을 가졋든 工事前의 江邊보다 雄大에 가까운 흙堤防우에서 對岸의 蒼苔끼인 岩山우에흔들리는 松林이며 휜조각돌깔린물까에 모닥모닥서잇는 포푸라를 바라보고、東便으로는 東鐵橋와 人道橋인 眺洋橋의 兩岸의 草綠에빗기인 端雅한 姿態를 바라보면 橋欄은 어江의 이름을 나타내듯 堅牢히線으로 보인다。

船遊는 나제도 조호려니와 달밝은밤이 더옥조타。배를저어 江西岸의 氷庫아프로가면 工事前에는 東岸의 포푸라술사이로 떠올으는달비레 멀리서엇든 포푸라가 가을바레 수놋대가려 보이여 한끗 凉味를 도두엇다。지금이라도 달에 배를 띠우면 소리엇시흘밤은는강물가 桂棹蘭槳은 아닐지라도 擊空明溯流光하든 蘇東坡의 赤壁江노리를 남들이게 즐겨할수는잇다。

그러나 今年은 趣味가 風流스런 船遊보다 조금 殘忍化되여 殺生인 고기잡이에재미가들고말엇다。

女人네의 고기낙기가 不當어나 그래도 當不當보다 내滋味를찻는다고 投網이야 어렵도업고 여울만차저가며 여울낙시를하면 조그만한고기놈들이 낙시를 무는그瞬間 팔목에느끼는 그엘리캐ー트한感觸어 比할때업시 滋味가아깃자깃하다。그리고 原來겁정인 나어라 산고기배를따기무서워 조감를 江邊에서 고기와 합께뛰며 奇聲을 질으든 꼴이야남의눈으론 못볼풀不見이겟지만나는 쥐를 어루는 고양어 자며보다 더엇든것어다。

今年은〃후리〃(地引網)가禁止되여 나가든 쫑때어 漁夫(?)는재판업듯 어련어동무들과 淸涼飮料를 술어라고한마리낙어올릴때마다 한잔식마시며 風流酒客들의 놀음을 숭내내는 고기잡이에 정신이빠진셈이다。

歐米學生의趣味生活 (二)

朴周植 寄

『옥스포ー드』大學에는 『론돈』大學보담一層、運動競技、趣味、娛樂方面에 興味를자어내는것이만다 此等 大學은 다各各 學業을닷는外에 靑年에 適當한 愉快한開催物을가저서 各自가公明正大하게 趣味的인 行事를하고잇다 어것은 또한 傳統的인 英國의歷史미테서 一種의風格을 이루어 敎育에對한 아름다운光澤을賦與하고잇다고생각되다

獨逸의中學校와 高等學校程度의學校에서는 寄宿舍의設備가업는곳은 거의하나도업고 다만大學에이르러서는 或特殊團體가設備한 學生들의宿舍를 利用하는일도잇스나 一般的으로는 寄宿舍의設備가잇는것은 거의하나도업다고해도 過言이아니다 그리고 生徒는 自宅어나 또는 下宿으로부터 通學하는것이普通이다 이點은 英國이取하고잇는 寄宿舍制度와는 매우틀리는것이다 또 下宿을 한다고해도 英國의『옥스포ー드』나『켐브릿지』大學과 가티 學校가認可한 公認의下宿이라는것은적다 그러나 中學生과 專門學校의 學生間에는 音樂의큰『반드』와 또遠足團體와 運動競技等의 季節마다 그들의 興味를 자어내는開催物이만허서 音樂方面의 趣味의노픈데는 정말 驚嘆할만하다 中等學校의實業學校가튼데서 어느時間어제일 生徒가緊張해잇는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音樂의時間이다

獨逸의 學生生活中에서 特筆할만한것은『펜빈등』(學生俱樂部)어學校의 課業以外에 設置되여잇는것이다 어것은英國의『카레ー지』의 組織보담도 좀덜러서 極히學生本位어고 自由스러운組織인데 最近에는 伯林가튼 大都會의 大學에서는 社會的各種施設의 進步에따라 漸次이組織이 衰退하여가고잇는것가트나 그래도 시골大學에서는 아직도 强한 勢力을가지고잇다 表徽하여젓다고하드래도 어직도 十四나 十五의俱樂部를 가지지어니한大學은업다고해도 조흘만한데 여기서는 一週에한번이나 두번은 그俱樂部의 學生全員及그俱樂部의 卒業한사람들까지 반드시모혀서『삐ー루』를마시고 또 한 快活한 學生歌를 合唱하며 食堂가튼設備도잇서서 簡單한食事가된다。

적은『홀』어잇서서 거기서會員들의『딴스』를 하는곳도잇다 俱樂部中에는 四百年동안의歷史를가진것도잇서 各各 그聯邦의 國名을부친것어만히엇다 會員은 帽子밋과 衣類의 裝飾과 時計의『리본』가튼데 特殊한徽章을 부처서 그俱樂部를 標榜하고잇다。卒業生이라고해도 기러 그徽章을 尊重해서 그名譽를 더럽히지 안호려고 힘쓰고잇다。터구나 그室內에는 칼을 걸거나 옛날會員의 服裝을 거려두어 學校의祝賀가튼때에는 各各 그俱樂部의 儀式의 禮服을입고 그特定한 旗를들고 行進하면서 모두 그것을 자랑하는것이다。

近來에는 殺伐的인 決鬪와가튼것은 점점 行하여지지안케되엿스나 어學生俱樂部라고 하는것어 獨逸學生의 祖國精神을養成하고 獨逸魂을 養成하는데그들의 情意敎育에 有力한 貢獻을 하고잇다고한다 오늘날『하이델베르히』大學『뮨헨』『게팅겐』『마ー르부르그』等 大學가튼데서는 아직도 盛旺한곳이어엇다

寫眞은 ホルモーゼ를創製하신 中井醫學博士와 本研究所顧問南先生께서藥物研究次朝鮮旅行時의紀念撮影

性慾學界의 大權威인

醫學博士中井先生께서

多年苦心研究하든結果

生殖機能絶對強壯劑ホルモーゼ

를遂發見創製함

老少男女를 勿論하고 人生幸福에 關心을가진사람은 모름즉이 多年間研究하야 完成創製의大業에 成功한 性慾學界의하나밧게업는 大學者中井醫學博士의말을드르라。아래博士의말슴을記錄함(係)

001528

創製者 中井醫學博士談

ホルモーゼ(ForMose)는余의多年苦心研究의 結果完成한純性喜르몬劑이다

ホルモーゼ는 東洋固有의哺乳動物의 臟器中에서生殖腺喜르몬의『에쎈스』(Essens)를 化學的으로抽出하는데成功한것이다

ホルモーゼ의 特長은人體에잇서서의 生殖腺의內分泌作用을 亢進식히며 生殖器障碍를 完全히治癒식혀서 生殖器機能作用을 復活旺盛케하는 同時에活潑한 作用을持續식히는데 偉大한 效果가잇는것을 發現하게되엿다

ホルモーゼ의 服用에依하야 性的不滿을 一掃하고 潑剌한元氣와精力을어더心身共히 完然히젊어지며 人生이再逢春하야힘잇는 人生歡喜를把握하야서 人生의 幸福을滿喫할수잇슴을絶對로 밋어疑心치안는바이다

生殖器障害에 苦惱하는者와 精力의增進을 바래는者는 男性、女性을 勿論하고반드시 本劑의服用이 가장肝要할줄안다 以上

國際ホルモン研究所長談

男女를勿論하고 또 老年、中年、靑年을 莫論하고 모ー든疾患의 原因이奈邊에잇는가하면 結局根本原因을차저내면 人體內에 喜르몬이 缺乏한것입은이제 새삼스러히말할必要가업거니와이제 其原因을차저내인지는 어미오래엿지만 重要한其結果를찻지못하여 如何히하면 어難問題를 解決하야 生殖器障碍、生殖器發育不全、不能、早老其他精力減退等을根本的으로因한 疾病을根治할수잇슬가하는것이 醫學界의 重大問題가되엿슴은 勿論學者들이 全精力을바처이研究에 苦心하든고리斯界의 大權威인 中井醫學博士께서 苦心多年에 成功을하엿슴은 全人類를드러서 祝福하지안흐면 안될일이고 特別히其研究가 우리東洋사람을 標準한 만치東洋사람에게는 百發百中의 效力이잇다고하니 우리는이 中井醫學博士의 苦心의程度도알것지만 研究者의目的이 人類의幸福을 爲하야 多年苦心한것이니만치 하로빨리服用하야 人生幸福을 누리는것어 即研究者의게對한 報恩인줄알며 弊研究所에서도『喜르몬』에對하야 研究하여오던中 이번中井先生의發明한 ホルモーゼ를實地로研究實驗해본 結果果然世界에서 처음보는大成功品이기로 率先하야 中井先生製品을 引受一般希望者의게 頒布키로되엿다 以上

青年 人生의 最大幸福期에 잇는 靑春時代에性慾不足性器發育不全早漏不能症生殖器故障陰萎等으로 男性은 女性의게 女性은 男性의게서로 不滿을주는것은勿論自己自身의恒常快感의幸福을엇지못하는 男女는百發百中

老年 四十以上에벌서早老症이생겨서 異性의단맛을못보고 늙는것만한탄하는분들은 服用二日이면 更少年의깃븜을엇게되며 精力이强하야 지고記憶力이 强하여집니다

房事過度 로恒常머리가 무겁고記憶力이업서지며 頭痛이나고 憂鬱症이나고 神經衰弱이되는분은服用하면할수록 完快하여저서 人生의幸福을맛보게됨

人生이늙는理由

人生이 늙는理由는 體內에잇는生殖腺『喜르몬』(內分泌)減退하기 對向이다 即 다시 말하면 性慾이 減退하면할사록人生은 빨리늙는것이다 그럼으로 體力에『喜르몬』이 充滿햇스면 靑春의幸福을 맛볼은勿論늙지도안코 또늙은사람은 젊어지고 同時에 靑春時代와가티 人生의歡樂을맛볼수잇다 靑年의體內에『喜르몬』이 缺乏은人生의自殺과가다 또산송장과 무엇어다르랴! 男女老少를 勿論하고體內에『喜르몬』의 補充이야말로生命線이어다

服藥報告實例의一部

服藥三日에性慾이充滿 朝鮮平北慈城 金景瑞

生은三十一歲의 男子이온대女性을 對하야도 아무 性感을엇지 못할뿐더러 無理로 性慾이 업는것을 女性을 關係하면 翌日에는 도머리가 무겁고하야 苦痛中이번에貴所에서 頒布하는 中井博士의 藥을 三日채服用하니 머리는깨끗해지며 性慾이 倍前하여집니다 또六〇錠만곳보내주소서

一週日服用하니마음도젊어저 朝鮮京城府城北町四六 柳喜曦

貴ホルモーゼ를 一週日채服用햇드니 性慾이 倍前하여지고 四十이넘은나로서 心身共히 二十代의靑年時代와갓소이다。其間은或妻와 同房하면四五日은 氣運이업고 머리가무겁고하드니 其藥을服用한지 一週日이되니 全然그런症勢가 업서지며 性慾만强하야집니다 못그리운말이지만 同房이자저집니다 後日또注文하겟나이다

ホルモーゼ는어떤病에 百發百中인가左記諸病에 百發百中이다 써보면안다

ホルモーゼ(FORMOSE)의適應症

(男性用) 陰萎(不能症、早漏、遺精、夢精、健忘症、生殖器發育障碍、兒童發育不全症、生殖官能耗弱短小症、性慾減退、早老症、更年期障碍、神經衰弱、憂鬱症、自信喪失、毛根發育不全에依한禿頭脫毛症等

(女性用) 兒童發育不姙症、子宮發育不全、乳房發育不良、性慾缺乏、不感症、肥滿病又는其他의新陳代謝障碍에잇서서性慾的障碍、更年期障碍、無月經、神經衰弱、히스테리、憂鬱症、月經困難、健忘症及毛根發育不全에依한禿髮脫毛症等

▲藥價▼ 十日分 四圓八十錢 二十日分 九圓 一個月分 十三圓 二個月分德用品 二十圓 送料四十二錢

東京市向島區東三ノ十六 國際ホルモン研究所 振替口座東京一五一九四〇番

醫學博士中井先生創製 絶對強壯劑ホルモーゼ

村民全部를잠재우는 늙은白人의妖術師

南아푸리카를探險한寫眞師의報告

너의들은조을릴것이다 자거라! 자거라!

南亞 加利加의 쓰ー루ー土人部落에 굉장이奇異한 催眠術師가 잇서서 彼氏의 號令一下면 部落民이全部잔다 ─ 는 소문이 最近널니퍼젓다. 南亞聯邦『나타ー르』州『타ー반』市의『아레크·리리아스』라고하는 冒險하기진기는 寫眞師한사람이 『내가한번 探險을 해보겟다』고 勇躍해나섯다.

소문에의하면 이秘術境에는 妖術師가 만히잇서서 秘術을 探知하려어는者는 全部 죽여버린다고함으로 리리아스君은 실상은 켕겻스나 部落民全部가 催眠術에 걸려잇는것을 寫眞으로 박는다면 그야말로 世界에 類가드믄 珍奇한 뉴ー쓰가되리라고해서 勇躍하야이 秘術境探險의길을 떠난것이다

『렌뇨』山에 이르러서 숩속으로 가마니 問題의『쓰ー루ー』部落을 드려다보니까 때마침『어느日曜日의午後』엿다. 그때 적은 언덕우에서 土人세사람이 恍惚한

放心 狀態로 눈을 감고 두손을드려 무슨줌인지추다가 얼마나 疲困하엿든지 그만 쓰러저 잠을자는 것이다. 옳지 인제 그催眠術이 始作되엿구나하고 寫眞師리리아스

君은 自己마저 催眠術에 걸리면 探險의大望도 水泡로도라가겟스므로 아주 精神을밧작채려가지고서 좀더드려가보니까 果然 밋지못할 光景이 정말 眼前에 버러젓다. 部落民數百名이 그야말로 累累한 屍體와가티서로 비고 기대고해서모두 熟眠狀態에 빠지고 마럿다

催眠術師는 意外老白人

그중에 한사람의 風貌한 하면서도 貧弱한 催眠의 催眠術師가 서 잇는데 그 사람은 또한 意外로 老白人이엿다. 小學校 先生가튼 服裝을하고 잇스나 眼光만은 果然 炯炯하엿다. 一見 六十餘歲쯤되여보이나 彼氏의 催眠術이란 極히 簡單한것으로서 『너들은 조을릴것이다 자거라! 자거라!』하는말을 土人의말로 메번하는것뿐이다. 리리아스君은 所重한 카메라도 이저버리고 茫然하게 서잇노라니까 白人의 催眠術老는 벌서부터 이寫眞師가 올줄을 알고잇섯던드시 조금도 놀라는氣色이업시

悠悠하態度로 인사를하엿다. 『그대가 오리라고는 벌서부터 알엇다 죽인다는것은 말간거짓말이다 아무 염려말고 寫眞이나 박으라 내가 이르키지안흐면 土人들은 언제던지 이러나지안는다 오늘것은 엇더케되엿느냐고? 아까 그대는 세사람이 춤을추는것을 보앗지 그것은 이때까지 이部落의仇敵이엿다 그럼으로 그者들에게 催眠術을 거러서 善意를 주게한다. 그러면 모두이편이 되고마는것이다. 다른것들은 엇더케되는냐고? 結局土人들은 무엇이나 겁을내는것이다. 이恐怖를 催眠術로서빼내여 버리는것이다. 어리가말을듯고 절굼바리 거릇게 되고하는것이라. 나는 누구이냐고? 나는 저압산미테 事務所가잇는데 일홈은『메ー터ー디ー틔르슈탓트』이다

하면서 自己事務所로 라갓다. 무엇에 홀린듯드해서 精神을 채릴수가업섯스나 何如間 가지고간『카메라』이라『科學의눈』으로 찍어낸것이 다음에보는 寫眞과가튼 珍風景이다.

祈禱를하면 잠자는信者

예전이나 野蠻人가튼 몰라도 科學時代의 文明人에게 催眠術따위의『인치키』는 信用을 밧지못할것이라고하지마는 學者들은 그래도 催眠術의 威力을미더서 『健康한사람의 九十乃至九十五퍼센트는 催眠에 걸릴수잇다. 다만 그程度의 差異가잇슬따름이라』고한다. 다시말하면 催眠術따위에는 걸리지 안흘만한 神經이 强한사람은百名에 단 다섯사람밧게 안된다고한다. 그實例로는『스에덴』에 만흔 信者를가지고잇는『필라델피아 敎團』에서는 祈禱가 始作하면 敎會의 信徒들은 모두 탁탁 잡버저서 자고만다고한다. 새로 드러온信徒들도 곳 이雰圍氣에 석혀지고만다고한다. 이것은 南亞弗利加의 土人이아니고 모두 洋服입은 紳士淑女들이라고하니 더욱 壯觀이다. 이러한 宗敎的儀式을 催眠術과함께 取扱한다고해서 성을내일넌지 모르지마는 學者들이 그러타고 認定을하는바이니까 하는수업는일이다

宗教的環境의힘으로 因하야 自然的으로 催眠狀態로 誘導하는것이다. 讚美歌唱歌 讀經說敎가튼 古來傳來의宗敎的儀式은 大槪가튼形式으로서單調리즘과 催眠暗示로 誘導하는것이다. 單調한 刺戟을주어서 催眠狀態를 誘導하는方法中에 이것은 聽覺을 刺戟하는것으로서 催眠術로는 比較的 單純한것에 屬한다고한다.

醫療에도應用되는催眠術

그럼으로 說敎를 듯고서 곤조우는사람이제일 熱狂한 信徒인데이나 때로는 大學敎授들이 市敎師以上으로 催眠術을걸어서 講堂의 學生들이 모두 催眠三昧境으로드러가게하는것은 좀 걱정거리이다. 催眠術이란 相當히 廣汎圍로서 學者에依하면 巫女、降神、禁厭가튼것은 말할것도업고 坐禪、靜坐法、腹式呼吸法等의 修養法 健康法도 여기드러서 이것은 一種의自己暗示로因하야 스사로 誘導하는自己催眠이라는것이다. 그럼으로 催眠術이란 반드시 나쁜것은 아니고

神經 精神系統의 여러가지 病─ 歇斯的里 不眠症 飮酒癖가튼病의 治療에도 應用된다고한다. 그러나이러한方法은 嚴格한·醫師에依해서 科學的으로하면 몰라도 잘못하면 도리혀 精神에 大障害를 주는것이다.

暗示만으로 자게되는것

催眠術이란것은 本來科學的으로 정말날지 못하는것임으로 不可思議한現象과 珍談奇談도 만히잇다. 첫재 사람에依해서 催眠의 程度가 다르다、實例로서는 數年前 倫敦서 이러한事件이 이러낫다. 印度의 行者가 倫敦에 와서 石炭을태워가지고 表面은 二百度의熱이잇는 우에 悠悠하게 散步를해보혓다. 勿論 발바닥하나도 데이지안코. 그러니까 白人行者가 여기에 挑戰해서 저도 한번해보앗스나 勿論 한발자욱도 옴기지못하고 발바닥이타버렷다. 그러니까 結局은 白人의行者는 印度의 行者와가티 信仰이不足해서 精神으로서 발바닥의神經을支配하지못하엿스나 印度의 行者는 精神이 肉體를支配한것이되엿다. 이와는反對로 차거운 저까람을 被暗者의 팔에대이고서 暗示가운 저까람을대엿다고 暗示를하면 당장에 火傷이생겻다 고하는 實例도잇다. 米國의監獄에서

死刑囚를 催眠術狀態에두고 目隱을 팔에 떠러트려 땅바닥에 흐르게한뒤에『네팔을 베여서 피가흘러내린다』고하엿더니마는 당장에 貧血症이 이러나서 죽은例도잇다고한다.

普通溫度로 凍死한사람

一九一三年 러시아의어느 鐵道從業員한사람이 貨物列車를맛는데 엇지엇지하다가 그는 冷藏製造가잇는 野菜貨車에 가치여버렷다. 그래서 그이튼날아침에 發見되엿스나 그는 벌서 凍死體가되여버렷다. 그러나 그날은 貨車에 冷藏裝置를하지안코서 普通溫度밧게되지안혓스나 그는 冷藏裝置한속에 가치엿다─고미덧든때문에 그러케 凍死를한것이다. 그럼으로 催眠術의 濫用은 犯罪하는것이지마는 犯罪에 應用하는것은 더욱 무서운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境遇는 特殊한精神狀態에잇는사람에게만 이러나는것이지마는.

催眠應用의 奇怪한犯罪

一九三四年 獨逸의『하이델베르히』에서 이러한 奇怪한 事件이잇다. 어느 官吏가『내안해는 七年來로 支途不明의돈 三千마ー크를썻다 이것은 아마 엇던者에게 催眠術이 걸려서 도둑내라고 强制되엿는데 틀림업다』고警察에 呼訴하엿다. 警察에서는 大龍伏色해서 活躍을햇스나 아무 要領도엇지 못하엿다. 그래서 마침내 獨逸의 催眠術의泰斗『루ー드위히·마이야』博士에게 鑑定을 依賴하엿다. 同人은 히스테리도아니엿다. 다만 自己는 記憶할수업는 어떤者에게 늘 시달리엿스나 다 이저버려서말을할수가업다는것을 博士는看破하엿다. 그뒤로『마이야』博士는 彼女를 催眠狀態에 너코 會話하기를試驗해서 二年間苦心한結果 차차로 疑問은 解決되여 七年前부터 彼女를 催眠狀態에 끌어너코 大金을 내게한怪紳士『왈타ー』라는 者를 찻게되엿다.

彼女는『왈타ー』를보기만하면

催眠이되여 괴로운데 催眠에서부터 깨여나 大金을주고나면『왈타ー』고 무엇이고全部이저버린것이라고 하엿다.

(寫眞은『쓰ー루ー』部落民이 催眠術에걸려서 쿨쿨하게자는모양)

못바들孝誠에 열네男妹건사

그리든母性愛나處女의몸이니 慈情에벅차는"자장歌"

託兒所保姆와 벌거숭이들

한낫의 꿈이란 허되기짝업는것이다. 가난한 月給쟁이가 罪스럽게도 五百萬圓의 巨金을 만젓다가 눈을뜨니 꿈이러니와 아직 시집도가지안흔 처녀가 아히를 몃十名式기르고 잇는것도 한낫의꿈이다. 뜨거운마음과 엽분얼골로 사랑을 치어다보고 생긋벙긋웃는 어린아히를 볼때 아히낫치 못하는사람에게는 돈보다도무엇보다도 第一가지고싶흔 寶物일것이다.

記者는 한낫의 꿈을 차저서 멧살이밝은쪽이든 어느날午後 東大門안婦人病院안에잇는 託兒所를 차저갓다. 마루에 드러서니 시원한바람이 드러오는마루에 어린아이들은 그넓은마루에 모다제멋대로 적은책상에올너안저 놀기도하며 한자는친구도잇다 어린아이들은 지금엇던한낫의 꿈을꾸는것일가?──

어린아히를 기르는 이託兒所의 어머니로게시는 孫氏를 차즈니 어린애들의옷을가려입히느라고 쩔쩔매고잇다 『당신의나히는몃살입니가?』 하고 물어보앗다. 『설흔세살이예요』 그는 이상한사람도 만난드시 記者의 얼골을치어다보앗다 『당신아히는엇더케하얏습니까』 (한낫은 나에게 無禮를 가르처주엇다) 『에구머니 시집을 가지안햇는데 아히가잇슬수잇습니가?』 못는사람은 常識을 尊重한다 설흔세살이된 女人이 未婚일줄이야 누가 아럿스리요 그러나 事實은 어린애가 잇스면엇저나하고 근심하던터이라 맛침 잘되엿다 어린애업는女子가 어린애를 몃十名式 길러내여야만 한낫의 꿈을꿀수잇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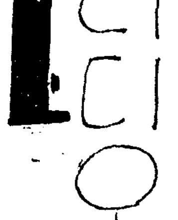
『이託兒所에는 어린애가 모다열네名이 잇습니다 날마다 내손으로 길러냄니다 이때까지길너낸 어린애는 百명이넘습니다. 열넷가운데 사나히는 다섯바게업고 모다계집애입니다 第一나히만히먹은애가 지금처기 잇는아히인데 난지 스무달이며 第一어린애는 난지한달밧게안되엿습니다』

시집도 가기前 엇더케만흔 아히를 길너내엿는지 어린애기르는法式은 환합니다(이때 그의얼골에는 어린이를 가진 스면하는 그리움이 흘너내렷다 失禮!』 『여기잇는 어린애가 모다 당신애기라면 오직조켓서요』 記者는 그를同情하는것처럼 엉성을 떠럿다.

『글세올시다 저도그런것을생각해볼때가 잇습니다 여기잇는 어린애가 열넷이니 십사남매 아들이 다섯 딸이 아홉 딸이조곰적고 아들이 조곰만 더스면 조켓서요 慾心도대단하지요 그러나 이왕식사남매를 기르느라고 苦生햇스면그래도 아들을 열둘은가저야되지안켓서요 시집보내고 가장보내고 일거리도만키는 하겟습니다마는 그게樂이지요 뭐! 제일나히만흔 애가 딸아히니 첫딸은 살림미천으로……』 그는 무엇을 생각햇든지 얼골을붉혓다 그가 한낫의꿈을깨는모양이다

『옷을해이피는대도 무척힘을겝니다 아이구 학교도씨켜야하지안켓서요』 잠자코잇든 그로하여곰 다시한낫의꿈을 꾸여야되겟다 『그러치만 정말 그러케된다면 그야어떠케하더라도 못대여내겟서요 제복을 제가타고 낫슬겝니다 그가운데는 정말 개똥가티 못생긴것도 잇슬것이요 천하에 일홈을 날릴위인과 영웅 그리고 양귀비처럼 아름다운 미인도 잇고』 그는 어린애의 코물을씨처주면서 책상우에노힌노리개를만자거리고잇섯다. 그때에 저쪽편에서 낫잠을깬어린애가 울기시작하자 그의 꿋침을모르던한낫의꿈이야기도 깨여지고 다시現實로도라왓다.

라디오



二十九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二) 一、하ー모니카 二、장은별 朴景嬉 外寶濟兒童세분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金顯大
◇同八時 農村講座 (一)稻의病害와防除法 金雄珏
◇同八時三〇分 一、도라지打鈴 二、興打鈴 三、쎌리리야 四、오돌독 李眞紅 細笛 姜鶴洙 短簫 崔壽成
◇同八時五〇分(平)라디오드라마 "가륜花壇"全一景 配役 崔氏(어머니)鄭戩 (그의딸)石英娘 玉峰 (詩人)曹仁愛 秦伊(敎員)韓正姬 富德 (戰沫의戀人)石舞國 이옷 婦人甲 朴特寶 同乙 柳明玉 寫眞篤 金玉順 配達夫 金石振 平壤芙蓉會 演出 朴信哲

第一放送
◇午後六時(熊)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東) 歌物語
◇同七時三〇分(城) 農山漁村時間
◇同八時(東) 長唄
◇同八時二五分(東) 風琴
◇同八時四五分(東) 俗曲
◇同八時五五分(東) 講談

三十日(金曜)

◇午前一一時一五分 講演『自然과親합시다』 成秉燦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眞城歌 二、唱劇調 春香歌 杖鼓韓成俊 崔蘭珠
◇同〇時五五分 野球試合實況 (國語)─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豫選
◇同六時三〇分 童話『별나라에서온 난쟁이야기』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朝鮮日報 崔益善
◇同七時 夏期課外講話 銀河이야기 韓埰表
◇同八時 時局講座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二數大葉 二、界面頭擧 三、弄 四、編 安鶴仙 金美花 金相淳 洋琴 金永根 大笒 金一宇 杖鼓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가、토끼打鈴 나、沈淸傳中臨塘水가는데 朴玉花 杖鼓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追分及詩吟
◇同六時(崎)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城) 製氷見學
◇同七時三〇分(東) 管絃樂
◇同八時(東) 라디오드라마
◇同九時(東) 時事解說

三十一日(土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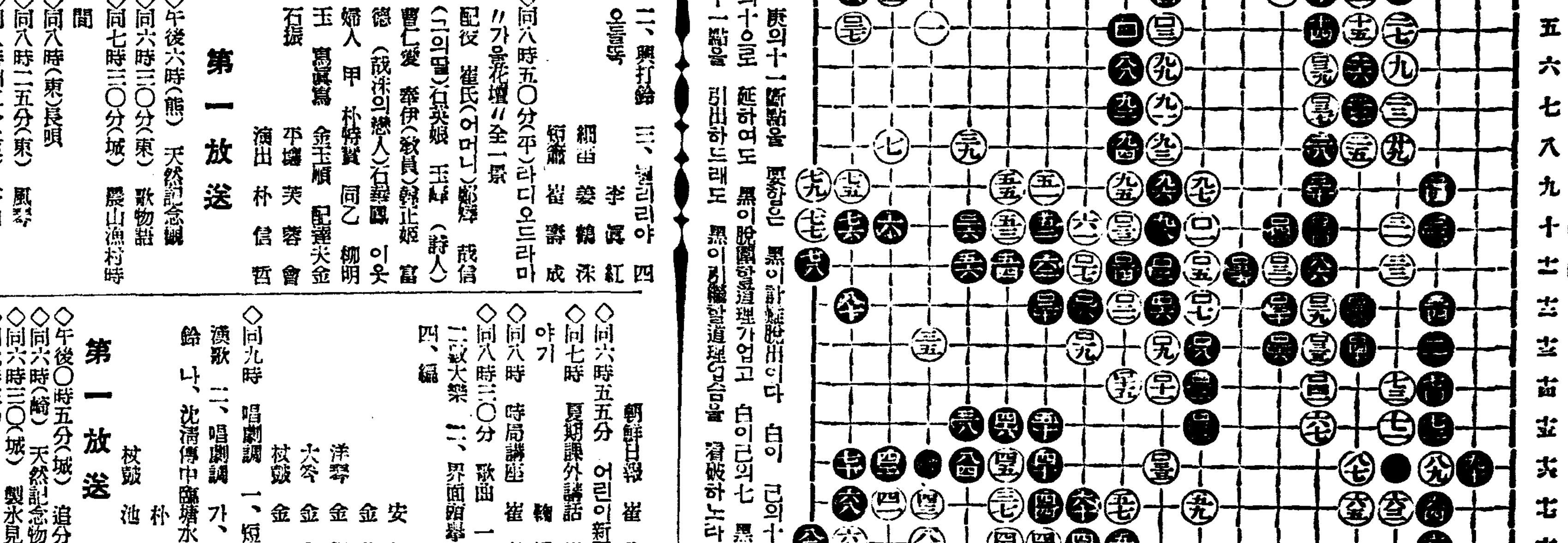
◇午前一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婦人과法律常識 崔白珣
◇午後〇時五分 맨돌린合奏 一、나폴리에서 메싸카ー포作曲 二、船人 그라사니알레데作曲 三、산타루치아 伊太利民謠 四、배노리 高橋功作曲 五、船人의노래 그라싸니알레르作曲 六、베니스의배노래 무니에르作曲 高橋맨돌린、앙상블
◇同六時三〇分 兒童劇두篇 一、귀동이의飛行機 二、착한마음 京城두루미會
◇同六時三〇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夏期의讀物에對하야』 李克魯
◇同八時 農村講座 (二)稻의害虫과防除法 金珏雄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빗나는봄 李仁洙作詞 基永作曲 二、傷痕의시내 朴英鎬作詞同 三、못가는故鄕 李品香作詞同 四、에헤라靑春 金尙花作詞同 五、콧노래 李仁洙作詞同 伴奏 DK管絃團 盧碧花
◇同九時〇五分 野談『虫二種』 申庚秋
◇同九時五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短簫 崔壽成 李承煥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城) 尺八及八木節
◇同六時(福) 天然紀念物
◇同六時三〇分(大) 童話劇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物眞似
◇同八、一五(東) 落語
◇同八時三五分(東) 歌謠曲
◇同八時五五分(大) 浪花節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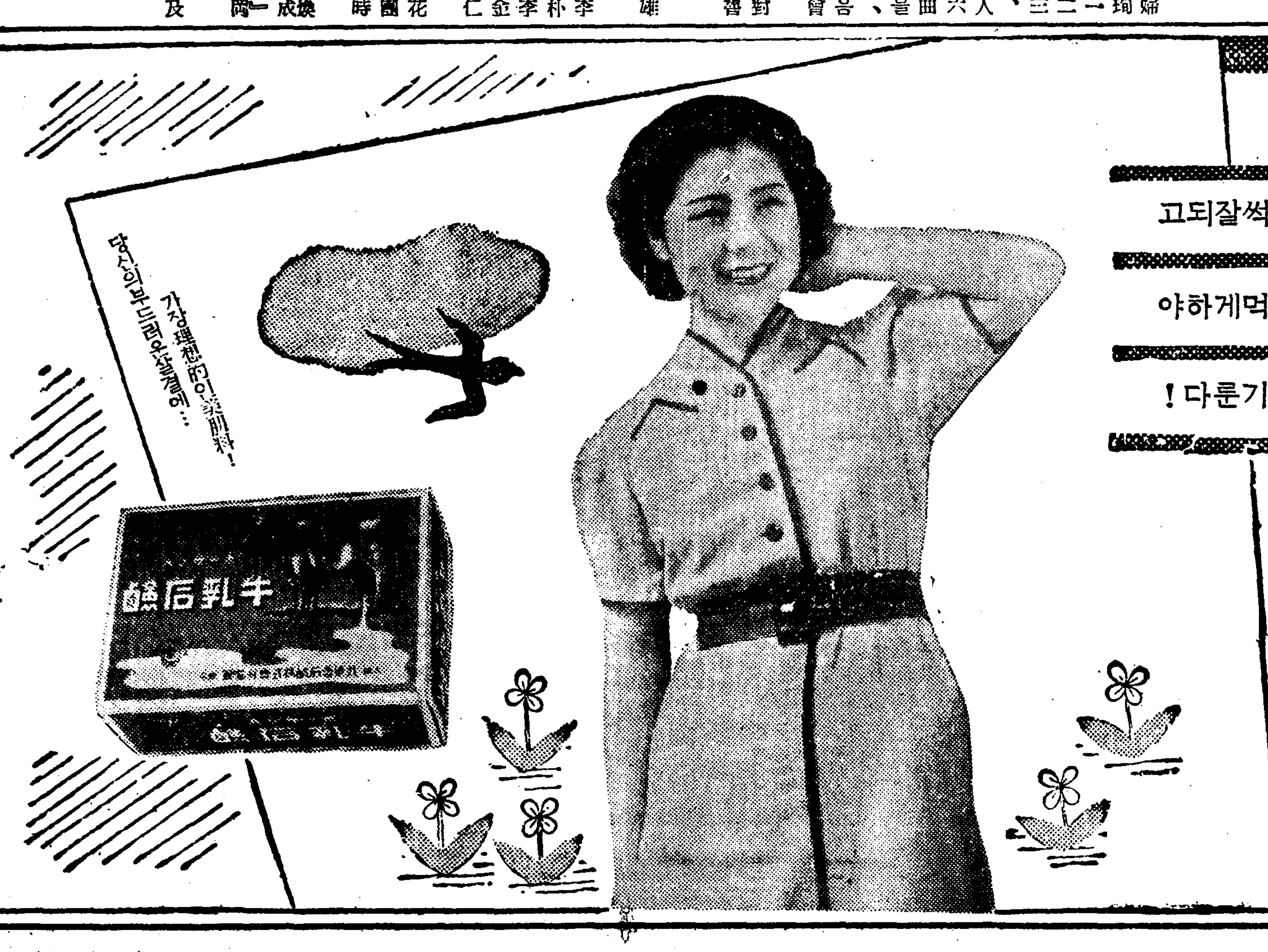
白 廣瀨仲子
黑 尹天鉉

○一二九 己의十二
●一三〇 庚의十二
○一三一 庚의十一
●一三二 壬의十五
○一三三 癸의十六
●一三四 己의十
○一三五 己의十三
●一三六 辛의十一
○一三七 己의七
●一三八 戊의十二
○一三九 己의六
●一四〇 戊의十三
○一四一 己의十四
●一四二 庚의十
○一四三 午의四
●一四四 申의三



觀戰記

白이 己의十二로 庚의十一斷點을 要함은 黑이 許擬脫出이다 白이 己의十三으로 應치말고 庚의十으로 延하여도 黑이脫圍할道理가업고 白이己의七 黑二一點 打取치말고 庚의十一點을 引出하드래도 黑이引繼할道理업슴을 看破하노라



お肌を健やかに若返らす!
살결을건강히젊게하는

젊음을 나타내는 健康한 素肌美 ☆

살결을부드럽게 化粧에一段의生彩를加味해서 近代美를 發揮하는皮膚의榮養料! 牛乳石鹼

거품이만히나고除垢作用이씻잘되고
살결을 다듬어서 白粉이잘먹게하야
아름답고 健康한 살결을 기룬다!

牛乳石鹼

거품이美를내는

本舖 大阪 共進舍石鹼株式會社

S.26

中部版

逍遙山中의清凉瀑布 (다시보는 近畿地方의 名勝 ②)

洪城서도獻金

【洪城】 홍성공립보통학교 여자 오번생인 최배희(崔培姬)는 지난이십삼일 오후네시에 저금하엿든 시십오원이십전을 차저가지고 그의부친 최일봉(崔日奉)씨의 동의를어든후 홍성경찰서에 가서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엿다 하며 홍성읍내에서 종묘상인으로 나간 산하정부(山下正夫)씨와 소학교 륙학년 정미군(正美君)(一二)은 현금일원오전을 국방헌금으로 홍성경찰서에 헌납하엿다

京南地方發展策으로 産業博覽會場誘致猛烈

會場候補地로는 梨泰院共同墓地터로 位置와風致로 모다適好地

【京南】 경성부에서는 오는 소화십사년이 부제실시 제이십오주년이되므로 이를 기념하기위하야 대산업박람회(大産業博覽會)를 개최할터인바 여러방면으로 계획중인데 그장소문제를 가지고 경성남부와 동부에서 맹렬히 유치운동을하고잇스며 더욱이 경성남부지방에서는 경남발전조성회(京城發展助成會)와 각정총대들이 협의를하여 이유치운동에 최선의 로력을하고잇스나 부당국에서는 이중간에서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잇스며 경성남부가 이박람회유치상가장 리상적후보지로 조타는 이유는 십사만평이넘는 전이태원공동묘지의 빈터와 남산주회도로좌우에 는약삼십만평에 부유지가잇스며 이지방이경치가조타고하는것이다 그런데 부당국자의 말을들어보니 만대한 비용을드려박람회를하면 끗난뒤에도 그섭비를그지방발전상 그냥이용할수잇는것을 택하고저한다하니 경성남부지방이야말로 이에가장 적당한장소라고 볼수잇다

急速한發展따라 쪼겨나는元住民

高價에홀려집팔고땅팔고 京南一帶도住宅恐慌

【京南】 경성부의 시구확장실시와 시가지계획령으로인하여 현재 포화상태에잇는 경성부인구를 장내경성남부지방에 거주식히고서 부당국에서는 사만삼천개에 백골이뭇첫든 전이태원공동묘지를 작년시월까지 정리하고 이에따라 남산주회도로도팔십오만원의 거액을던저 지금공사중인바 금년중에는 완성된다하며 이도로는 경남지방의 대동맥에 상당하는 중요성을가진곳으로 이부근에 토지를가진지주들은 지난삼월까지 평당십오륙원에 매매되든땅을 벌서평당삼사십원을 호가하고잇다 그러나 이와가티 급속발전하는반면에는 주택난으로 고통을밧고잇는 사람이 적지안흐나 그원인을 대강조사하여보건대 본래전인구에비하여 주택이적은데다가 경성부로편입된뒤로 소자본가들이 여기까지손을뻐처 별안간비싼값을 호가(呼價)하며 주민들을 미혹시켜 주택의매매를 성행하게하며 주택을판 주민들은 적은돈을가지고 다시자기들이살 곳을구하라고함에는 벌서 매매경선상(賣買線上)에잇는가옥이업고 별안간갈데는업고하여 일대주택난을이르키고잇다한다

巡廻時局講演 李開豐郡守가

【開城】 개풍군당국에서는 시국의 인식의 철저와 각성을 환기하기위하야 지난번 면장회의와공립학교장회의 또는군농조진흥위원회등석상에서수차 협의한바잇섯거니와다시일반군내 공직자급면민에게도 시국의인식을 철저케하야 총후에서 적극적 후원을하도록리군수(李郡守)는 관내 륙개소를 차례로 력방하며 "시국강연회"를 개최할터이라는데 시일과 장소는 다음과가티한다 ▲七月廿九日(午前十一時)土城公普校 ▲同月卅日(午後二時)土城[illegible]普校 ▲七月卅[illegible]日(午前十一時)[illegible]公普校 ▲八月三日(午前十一時)[illegible]公普校 ▲八月四日(午[illegible]一時)[illegible] ▲八月六日(午前十一時)靑郊公普校 ▲八月九日(午後一時)進北公普校

漢白米得勢時代 京南精米界의覇王

【京南】 경성남부십여개정미소의 상반기정미업성적을조사하여 보건대 대개예년보다 우수한수짜를보이며 더욱이금년상반기에는 정미(正米)원료에잇서서 한백미(韓白米)원료가 풍부하엿슴으로 검사미(檢査米)보다 한백미의정미성적이 근내에보지못하든 우수한 수짜를 낫타내엿다고한다

砂防人夫도獻金

【淸州】 충북괴산군청안면(槐山郡淸安面)사방공사장주임 김룡배(金龍培)씨외지원네명과인부백칠십명은 헌금삼십삼원팔십이전을 괴산서에기탁하여왓다하며 동군증평면(曾坪面) 김례환(金禮煥)씨외네명은 오십원을 헌금하엿다한다

平澤서도國防獻金

【平澤】 현하시국의 중대함을통감하고 국방헌금이 날로답지한다는데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의 수부액과 씨명은다음과갓다 振威郡梧城面徐相學三十圓 同 古德面餘染里金弘立外五圓五十錢 振靑學院長李敏恒外二十五人職員兒童一同十圓 內基里舞[illegible]洞民一同四圓

軍事美談

떠나가는車窓에서 던저준"一片情表"

無名兵士가歡送學童에게 開城驛頭의感激!

【開城】 지난이십오일 오후한시이십이분 군용열차(軍用列車)가 개성역에 약이십분간 정거하엿슬때 "[illegible]"에 [illegible]명의 환영군중이 만세를고창하고잇섯는데 입강준언공병대위(入江俊彦工兵大尉)의 지위하에 소속한부대 대중 병사한명이 차창으로부터 별안간머리를내밀자 국기를흔들고잇는 조선학생군중을 향하야 조고만종이뭉치를 하나던지고떠나버렷다 이것을 만월공립보통학교생도한명이 주어 교장에게주게되자 즉시그종이뭉치를펴본바 의외에도 현금오원과함께 다음과가튼 격려의글발이 잇섯다한다

『가난한조선의 학도들이여! 적은이돈으로나마 연필이나 반지(半紙)를사서 나노아써다오! 나는시국을인식하고크게활동하야 반드시국은(國恩)을 보답하겟다』라고 쓴글발이 즉 이것인바 이소년은 곳이것을 자기교장에게 계출하얏다는데 일반은 무사의 남다른정에 감격하야마지안헛다 한다

共有登記를奇貨로 宗中財産을賣喫

永登浦署에被捉、取調마치고 廿八日에七名을送局

【永登浦】 시내본동정(本洞町)시흥양조장(始興釀造場)주인 리강호(李康灝)(?)와 전군수 리기주(李起周)외 한국시대 문학박사 리기원(李起源)외사명은 시내상도정(上道町)에소재한 전주리씨(全州李氏)종중합유재산인 시가 이십여만원가는 림야약십칠만평을 전기칠명의 공유로소유권을 가되여잇는것을 기화로임마전에 명수대(明水台)모유력자에게 팔어먹은사실이 그종중인 리씨가문에 탄로가되여 수월전부터 영등포경찰서에서 게쟁소송중이다가 동서에서 사건의취조가 일단락을지어 이십팔일피고인칠명을 모조리자동차에태여 검사국으로 넘겻는대 피해건수는 륙칠건이며 이종중의관계자는 전조선에 약이천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조선고유의 종중재산관계상 일대경종이라하야 그결과가자못주목되며 종중재산관계자로서는 누구나 크게 주의할일이라고한다

黃金町新龍山行電車 終夜運轉을中止 理由는住民의安眠妨害

【京南】 경전(京電) 전차과에서는 시국 반영(反映)으로 약간 승객이 만어저서 지난이십사일부터 내월삼일까지 십일간예정으로동대문서 황금정을경유하여 신룡산까지 종야운전을 하여오든바 돌연 이운전을 중지하엿슴으로 중지한 리유를알지못하는 일반부민들은 변덕쟁이경전(京電)이라고 비난이놉다한다

京電電車課長談

별항――황금정 신룡산간의전차운전을 팔월삼일까지 밤새도록쉬지안코 운전하랴 하엿스나 룡산방면은 군대관계자가 만흔터인데 밤새도록 전차운전이끗나지아니하면 안면을 방해할념려가잇다하야 중지해달나는 부탁이 잇섯슴으로 부득이 중지하게된것이라한다

兄弟間싸우고 兄은縊首自殺

【仁川】 작금인천오복서로이향인 제 저울사건이 빈번하다 인천부외부평정(仁川府外富平町) 일번지 [illegible](三[illegible])이라는 중국소년은 [illegible] 일로 [illegible] 직창고에서 목을매여 무참히도 세상을떠낫다

忠北에서도 軍事聯盟創立

【淸州】 지난이십팔일 충북도당국에서는 청주읍장 재향군인분회 애국부인회간부등 관계자를 도지사응접실에 초청하야 충북군사후원련맹설치에대하야 구수협의하엿다한다

仁川客主組合 定期總會開催

任員改選·組合員表彰

【仁川】 인천객주조합에서는 지난이십팔일동조합에서 조합원총회를개최하고 십일년도결산보고와역원개선과 업적표창이잇섯는데 금년도는 곡물회착이 작년에비하야 약십일만석의감소를보엿스나 조합부가금을 매석구리씩이든것을 삼리감하하야 성적은다소량호한편이라는바 위원업적별은 다음과갓다한다

組合長洪在純 副組合長河相勳 會計主任李鶴夏 監事金鳳基 李聖宰 評議員 李圭稷 玄東淳 金成達 金東秀 金潤圭 李玄錫 葛亨大 劉君星 鄭雲詠 韓榮根 營業成績優良組合員 一等劉君星 二等殖產商會 三等金鳳基 四等李圭稷 五等鄭寅洙

001529

"各員은一層緊張" 擔當事務에專念

北支情勢의重大化에따라서 甘蔗知事課長級團束

이십팔일오전아홉시에 경기도갑자(甘蔗)지사로부터 각과장에게대하야 북지정세가 중대하게되여감에따라 일층긴장하야 각각담당한사무에 전념하야 민중지도에 유감이업기를 기하라고 훈시를하엿다 이리하야 각과장은 곳각기과원일동에게대하야 그뜻을 전달하엿다

素砂體育會의 役員推選決定

【素砂】 루보소사에는 모든시설이구비되여 비상한발전을 보이고잇는이때에 아직것 체육기관의시설이업서서 일반유지들은유감으로 지내든바 지난칠월이십사일소사체육회 창립총회(素砂體育會創立總會)를열어 회장과부회장을 선거한다음 역원선거는 회장과 부회장에게 위임하고폐회하엿섯다 지난칠월이십륙일 오전열시경부터 부평수리조합장실에서 회장유정전차랑(會長柳井傳次郎)씨와 부회장(副會長)문응섭(文應燮)씨와 증야호웅(增野虎雄)외 유지모모인이 모여서 추천(推薦)한바 역원씨명은 다음과갓다

會長 柳井傳次郎 副會長 文應燮 增野虎雄 顧問 元榮常 李聖煥 崔炳熙 小學校長 土居菊丸 神部正雄 須藤定雄 素砂驛長 天野春四郎 中園敬德 金應錫 佐藤部長 幹事 鄭雲濟 金守眞 李炳國 金貴周 金昌煥 金孝泰 水津義素 久木田重次 許炊 崔鎬 宣浩俊基

工業用水問題로 府勢振興會에서蹶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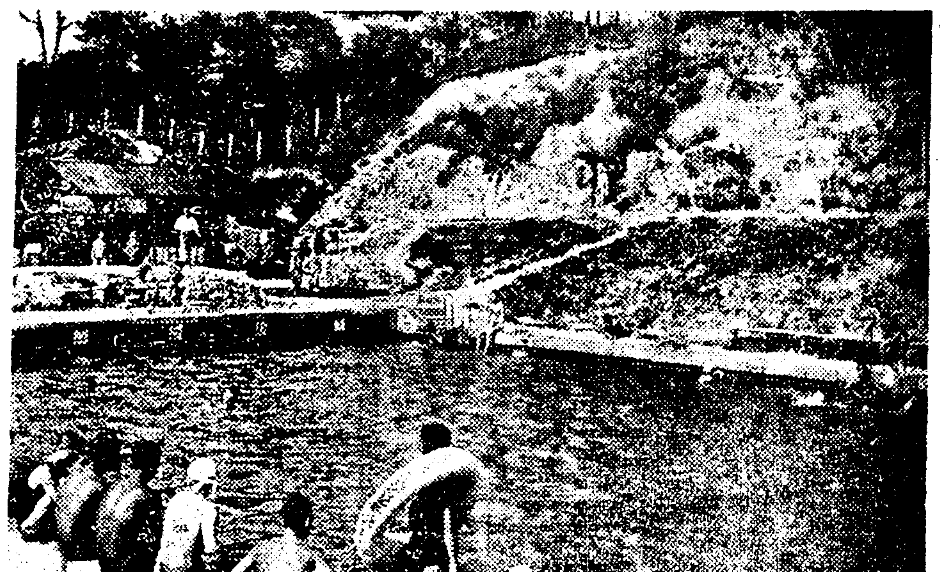
仁川工業化의頭痛

【仁川】 대공장의유속진출을보고 잇는 인천은 공업부역도시로서 면목을 역연케하고잇거니와 무엇보다도 두통을 알코잇는것은 공업용수로 공장기지의물색을왓든 대공장관계자들이 지대로써는 더말할것이업스나 용수난이 문제라고 주저하는자벌이 허다하야 인천부는 물론 인천부세진흥회(仁川府勢振興會)에서도 이문제를 해결하고저 노력중으로 기보한바와가티 부세진흥회의 공업에잇거니와 용수위원회에서는이십구일오후여덜시부터공회당(公會堂)에서회합을열고구체적협의를할터이라한다

官公吏半休中止

金浦郡各機關에서도

【金浦】 현하북지의 풍운은 날로 험악하여가는이때에 김포군수장영한(張永翰)씨는 관공리의 일층의 권리와 가리생각하는하기반휴의관례를 철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칠월에 소속일반 관공리에게 대하야여러가지의주의사항이 잇섯다는데 하기반휴중인 칠월이십일부터 팔월말일까지도 평상시와 다름이업시매일오후세시까지 사무를 보기로되엿다한다



大地에는太陽은이글이글 水泳場에물결은출렁출렁

【開城】 염천에 태양은 이글이글 "수영장"에 물결은 출렁 출렁 바다업는 개성에 그리운놀니라는 오직이곳뿐아니냐? 풍덩실―푸른물속에어드는몸이 하로에도 몃백명인지! 조선청소년의몸은 어곳에서단련되느냐 (開城"풀"所見)

仁川 第一回全仁川軟式野球大會

◇主催 仁川體育會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時日 八月八、十五兩日間
▲場所 桃山沐場
▲申請 四日까지體育會로
▲參加金 每團體五圓式

京南 慶州佛國寺探勝團員募集

▲主催 本社京南支局
▲後援 京城日本旅行協會 京城南部新聞記者團
▲出發 八月五日 ▲歸還 八月八日
▲申込締切 八月三日午後四時까지
▲申込場所 三越內日本旅行協會(電本三一二一番) 本報京南支局(電龍山七〇二番)
▲會費 二十五圓
▲人員 約三十名

長篇小說 花冠 【二】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여름밤의꿈(二)

여자고등보통학교 영어교원의 자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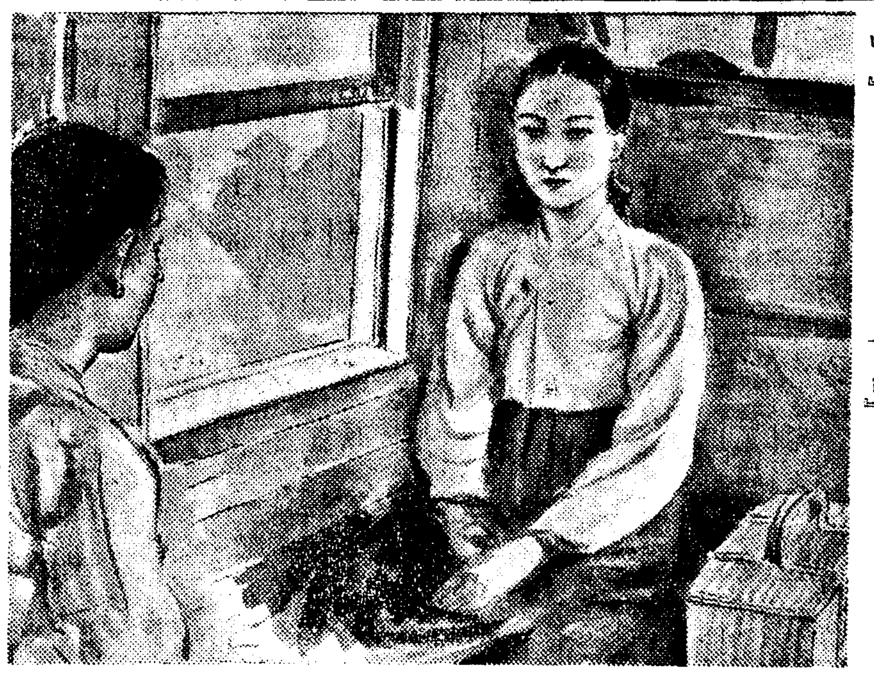
그러고 결혼할수 잇는 혼령기의 처녀.

동옥은 어번 여름에 좀 조용한 곳을 차지 이런것들을 문제삼아 보면서 지내리라 하엿다. 그래 어머니께서 소화불량으로 와계신 삼방(三防)으로 오는길인데 경성역에서부터 우연히 중학때동무 황정히를 만난것이다.

황정히는 송전(松田)에 자기집 별장이 잇슬뿐 아니라 어번에새로 약혼한 사람이 역시 송전에다 별장을 짓는데 설계를 의론할터이니 와달라고 해서 가는 길이라 하엿다.

차는 굴속을 나왓다. 그러나 동옥은 그저 눈을 뜨지 안는다.

『결혼할수 잇는 혼령기의 처녀?』



동옥은 애인에게로 가는 정히를 만난 때문인지 영어교원 자격자로서의 자기보다는 결혼할수 잇는 처녀로서의 자기를 좀더 음미해보고시퍼젓다.

『영어교원자격보다는 결혼자격이 더 안전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낫다.

『영어교원으로는 나보다 발음이나 해석이나 더 나은사람이 얼마던지 드러 찻슬게다 영어교원이면 영어교원으로누보다도 제일인 영어교원이될수잇기전엔 나는실타』

하엿다.

『그러면 결혼자격은? 남의애인으로, 남의 안해로, 남의어머니로는 제일일수잇는가?』

동옥은 혼자 얼굴을 붉히엇다. 차는 우르릉거리고 철교를 건너간다. 동옥은 눈은그저 감은채 수건을들어 이마를 닥는다. 아름다운 이마다. 눈을치켜뜨더라도 잔주름 한오리 그어지지 안흘상십다. 그러나 동옥이가 아름다운것은 이마만에잇지안타. 저녁에 보더라도 아침이슬밧헤서 보는듯 늘정신이나게 신선한 눈의광채, 처음 본사람이라도 동옥이가 얼는 잇처지지 안는것은 그 눈때문인듯 하엿다.

그러나 또 눈때문에만 아름다운 동옥은 아닌것이 저러케 눈을 감앗스나 눈을 뜨고 잇는 정히나 다른 여자를 보고는 오히려 더 벗나고 더 매력잇는 얼굴이 아닌가

『동옥아 잠들엇늬애?』

정히가 심심한듯이 동옥의무릎을 흔들엇다.

『아이 졸립구나 참』

하고 그제야 동옥도 눈을 떳다.

『너 정말 일주일 안에 꼭와야 한다?』

『글세 어머니가 가라구 하실지…… 그러치만 갓다 괘니방해되문 어떠케하게』

『요거시 인전 여간 안야』

하고 정히는 동옥의 무릎을 꼬집는다.

『아야! 가두 눈총 안쏠테냐 정말? 연애꾼들은 동무두몰른다더구나』

『요게 그래두…… 너 기숙사애들 호떡 사다주구 벌쓰던 생각안나? 그땐 쩍―끄만게 큰애들 심부럼이나 하구쫏차다니더게……』

『아―추 약혼이나 햇게 모두 어린애루 뵈지 결혼이나 햇단 어디사람 하나나 뵈겟니?』

하고 두처녀는 꼬집고 피하고하며 중학시절 그때처럼 소리노며 웃어보앗다.

차는 깍가지른듯한 절벽으로 달려들더니 또 굴속이 된다. 굴속을 나오면 또 물소리가 쏴! 한다. 내다보면 물은 견딜수 업는 정렬을 품은듯, 여기저기서 바위를 부딧고 부서진다. 부서진 물이 다시 합류가되여 우쫄우쫄곳을차자 나려가는것을 바라볼만하면 또 돌벽이히끗하면서 굴속이 된다.

『이런 험한델 어떠게 뚤럿슬가!』

동옥은 문득 이런 생각이 낫다

『나폴레온이 대폴 끌구 알프술 넘엇슬가』

『이런델 철길을 논것도 용치뭐냐? 이 굴들을 죄다 뚤우구 다릴 죄다 노쿠 맨―첨으루 시운전할때 얼마나 통쾌햇슬가!』

하고 동옥은 시게를 본다. 삼방은 아직도 한참 가야한다.

『하긴 코―쓰가 어려워야 나중에 성공하는맛이 클거야 뭐던지』

『뭐던지? 너이 연애두 그러캐?』

『고건……』

『아니 정말이다. 코―쓰가 쉬웟니? 어려웟니? 어려웟스면 지금 더 통쾌하겟구나?』

하고 동옥은 웃음에 쌓이나 눈을 날카롭게 하여 정히를 쏘아본다.

最大ナル設備ト最古ノ歷史輝キ・技術的權威アル敎授網
夏期自動車學生大募集 (要案內書請求四錢切手)
▲見ヨ!!冠タリ本校卒業生ノ運轉免許試驗每月合格數第一位ヲ占ム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朝鮮總督府京畿道認可 南大門自動車講習所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京畿道試驗場裏) ▲電話本局八六七 ▲振替口座二一〇五六

引伸現像
山과바다에서어드신傑作品을아래와가티奉仕합니다 地方注文送料本社負擔 手札十錢 カビネ二十錢 八切四十錢 四切六十錢 全紙一圓五〇錢 各一枚代現像一本十錢 京城竹添町三丁目六六 地殊堂
本社京販 電本② 一五九七番

參謀本部發行地圖朝鮮販賣所 (目錄進呈)
五萬分地圖販賣元
京城公平町六三(鍾路和信橫) 東亞商會
振替京城三九六番 電光二六三番 金敎昌

經濟時說

軍需豫算膨脹

健全財政主義者 故高橋是淸氏가 二十三億圓의十一年度豫算을編成하얏슬때에 國民이 非常時財政이란 名目下에 馬場藏相이 三十億의 十二年度豫算案을提示할때 茫然自失하얏음은 無理한일이엇다。그런데 十三年度豫算을 今日의 情勢로보면 三、四十億圓은 더膨脹되어 三十五億圓소리가 나온판이니 尨大豫算이 얼마나 커가는지 짐작할수도 업는노릇이다。

이러한 空前의 非常時豫算을 編成키爲하야서는 그財源調達의 必要로도 增稅와 赤字公債를 增發하여야겟고 十六七億圓에 達할 軍事豫算을消化키爲하야서는 軍需工業을中心으로한 生産力을 擴充하여야한다。

現下의經濟狀態로보면 國力以上의 三十億圓의 豫算은 그財源調達과 經費消化의二部面이 因果關係로되어 1、物價騰貴 2、輸入激增 3、賃銀下落 4、公債不消化 5、通貨膨脹等 모든不自然을 招致케될形勢임으로 그對策으로서 統制强化의 具體化이다。

×

그러면 尨大豫算을 削減할수 업는가? 歐洲大戰後依然히 닥처온世界恐慌이 狂暴하든 昭和五年이엇다 世界各國은 이猛然한火焰中에서 버서나고저 이未曾有의 困境에 빠저 國內的 財政的景氣政策은 勿論對外的 關稅障壁과 防火壁을 더욱 强固하게 닷고 半鎖한 自由主義經濟를 버리고서 所謂「블럭」經濟의 새로운 經濟體制를 세워서 이世界的新經濟傾向은「블럭」으로서 아모것도 가지안흔 日本經濟를 窮地에 陷케하얏다。

狹隘한 國土에 年年百萬式增殖해가는 人口를 擁護하고서 資源이 업는 日本資本主義經濟는 不自由한 壓迫을 至極한 一點에까지 到達케하얏다 滿洲事變을 契機로하야 日本은 國際聯盟을 脫退하고 所謂「블럭」經濟에 必要한 經濟的 軍事的 準備가 되어 이로써 日本의 經濟的 滿洲經營과 軍事的 準備에 必要한 예算은 尨大하여 졋다。그리하야 日本財政은 七千二百萬圓으로 膨脹되어 占하게되어 滿洲事變後 二十八億으로 十三年度豫算에 一億二十八億圓 이이로써 財政擴大하야서 日本經濟의 模範的 經濟的 경향을 가지게 되엇다。

1、滿洲의治安工作 2、政治工作 3、經濟工作으로順次進行되어야 할것이오 또他方으로 莫大한돈과時日을要한다。

이리하야 七年度以來 年年二億以上의 膨脹을 보이어 七年度以來 年年二億以上의 膨脹되엇스니 卽如左하다。

歲出總額(單位千圓)

昭和年度	實數	指數
五	一、五五七、八六四	一〇〇
六	一、四七六、八七五	九五
七	一、九五〇、一四一	一二五
八	二、二五四、六六二	一四五
九	二、一六三、〇〇四	一三九
十	二、二〇六、四七七	一四二
十一	二、二八二、一七六	一四七
十二	二、八一三、九〇四	一八一

(指數는昭和五年度를一〇〇으로함)

歲出種類別 (單位百萬圓)

年	行政費	軍事費	公債費	比率 行政費	比率 軍事費	比率 公債費
五	八〇二	四四四	二八一	五二%	二九%	一八%
六	八〇六	四六二	二〇八	五三%	三二%	一五%

【備考】十年度까지는 決算、十一年度以降은 豫算이고 軍事費의 膨脹이 最大이엇든것도 不得已한것이다。

【備考】十年度까지는 決算、一年以降은 豫算

그리고 이財源으로서 六、七年度以降은 赤字公債를 發行하야 大體財政의 關係上 十二年度에는 所得稅以下九種의 增稅와 法人資本稅 有價證券移轉稅、揮發油稅 外貨債特別稅를 新設까지하얏다。

增入歲出比較表(單位百萬圓)

年	租稅	公債金	其他共合計
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日滿을一體로한 新經濟「블럭」의 建設은 當初의 豫想으로는 三年以內면 大體成就될것이 스리라하엿스나 그러나 經濟的滿洲經營과 軍事的 準備는 意外로 ... 日本財政의 軍事的 支出이 더욱 만허지고 日本經濟를 促進하여 게 되엇다。그리하야 日本財政은 ... 十三年度豫算에 一經費가 占하게되어 ... 經濟에서 國家總動員的 經濟統制에 까지 發展하야 모든 矛盾問題가 近衛內閣의所謂 1、生産力擴充 2、國際收支適合 3、物資需給調節의 三原則을 根幹으로서 具體化케 되는것이다。

生産費低下를 産金業者要望

總督府의 新産金政策

尨大豫算으로全面的補助計畫

政府는 貨幣의安定을 目標로 金現送의 圓滑金保有의 擴充에 努力하고 國內産金의 積極的助長政策을 樹立하야 日本産金會社의設立을 企圖하는一方 各種助長政策을 來年度豫算에 所要豫算을 計上한後 實行에移한方針인데 이와呼應하야 가장有望視되는 朝鮮의産金獎勵도 總督府는 日本內地와 別個로相當히 大豫算을 伴한積極的 獎勵計畫을 硏究中인모양이다 그內容은 아직嚴秘에附하나 現行의探鑛補助와如한 微溫的의 것이아니오 徹底的 全面的補助計畫인것이 確實하야 産金業者는 벌서부터多大한期待를 가지고잇다 그런데 産金業者間의 一致한 要望으로서는

一、現行의坑道補助(探鑛補助)는 勿論繼續할것

二、探鑛、製錬에要할 電力料金의可及的低減을圖할것

三、火藥의供給潤澤과 價格의低下를圖할것

四、金山道路의建設을普及케할것等에依하야 生産費의低下를圖할 이 가장緊急要項이라고하는데적어도補助豫算은 計上할必要가잇다한다

産金獎勵經費 減額承認

總額四百萬圓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既報와가티 産金獎勵에關한 經費를 追加豫算으로서 計上코저大藏省에 追加槪算九百二十七萬圓을 提出中이든바 二十八日總額四百二十八萬三千圓으로減額한後承認되엇다

特殊鑛資源豊富

東拓이開發會社計畫

東拓은 特殊鑛이 時局關係의 特殊需要가잇슴과 朝鮮內의 特殊鑛資源이 豊富한데 鑑하야朝鮮內의 關係特殊鑛을 합처서特殊鑛開發會社設立計畫을 하는모양이다 아직 具體案은되지안엇스나 今年中에 實現될모양인데特殊鑛의 開發은 總督府에서도開發案을 硏究中인 一方利原鑛山의 高橋省三氏를 中心으로하야 鮮滿을通하는 特殊鑛開發會社設立을 計畫하는것이잇서 朝鮮內特殊鑛資源도 大資本의손으로 着手케되리라한다

日本內地紡績、人絹大資本의朝鮮進出이 續出하는것은 注目되다한다

地元銀行 預金爭奪戰

資金雜의 激化는 下期에入하야서도 依然繼續되어 이傾向으로地元銀行間에는 預金吸收競爭이 惹起되고잇다한다 一兩年前의 低利進行으로 預金協定利率은 嚴守되엇는데不拘코 이動向은完全히 逆轉이라하야 그形勢가注目된다한다

忠北、京南兩線 奧地로延長

山地帶開發進行期待

朝鮮의 背梁部를 形成하는江原道及 慶北尙地帶의 開發은一兩年來 三陟、寧越開發 京春線 道、中央線工事等等 南、北、東西로부터 縱橫의 交通網을 先驅로 一齊히 延長되어 其包藏資源開發이 待望되던바 最近에入하야 朝鐵及 京南鐵道에서

一、朝鐵忠北線延長

忠北線의 忠州로부터 寧越에延하는 延長線建設을 決定하고 鐵道局認可트 나와서 今秋부터 實測開始

一、京南線延長

京南은長湖院終點으로부터 延하야 原州로延長認可

의商工事着手가 決定되엇는데勿論兩線이모다 中央線과 連絡하야 效果를發揮할豫定이나 此等의進行에따러 文化的 經濟的으로 惡潮이적던山地帶開發進行이注目된다한다

朝鮮麥酒拂込徵收

朝鮮麥酒에서는 朝鮮內의麥酒消費增大에 備하야永登浦工場能力을 現在의二十萬箱에서 三十萬箱으로 擴張할計畫을 進하고이擴張資金을 充當키爲하야 株式拂込徵收를決定하얏는바 其要

一、拂込額 一株 七圓五十錢

一、期日 十月一日

一、拂込取扱所 東京 大阪(一銀) 京城(鮮銀、殖銀、商銀、東一安田、一銀)

現在資本金六百萬圓、四分一拂込이나 第二回拂込으로 二百二十萬圓拂込이되리라한다

硝子質小麥 格上承認

査定會議에서

二十七、八兩日間開催된 小麥標準査定會議에서는 昨年決定되지못한 구루텐(硝子質)小麥의格上은 從來의京畿、忠南北江原의 六十%以上의 共販品五十錢格上이되던것을 品質向上을 助成하는 見地에서 製粉會社가讓步하야 含有率八〇%以上은 五十錢 格上을 決定하얏다

殖銀米資激減

米資金回收는 順調로進行되어殖銀의 米資金貸出殘高는 겨우七百萬圓으로 前年同期의 一千六百萬圓에比하야 半減以下이오

本內地에은 五割의減增이엇는바 上半期累計出炭額은 如左하다(單位噸)

	今年上期	前年上期
日本內地向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大口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小口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不結果期의上期의實績이 如上함으로 今年의實績은 未曾有의巨額에 達할것으로보이어 確實히百萬噸을突破할것이라한다 그리고各炭鑛의本炭은 上期合計四十七萬二千五百噸이엇다

綿糸暴落

先物二百卅圓割

北支事變을 契機로 惡化하게된 綿糸는 그後米棉의 繼續的暴落으로 連日崩落되고 昨日은 米棉의 反撥로 少堅味를보엿스나 今朝에다시米棉의六十五錢低를보고 投物의殺到로先限은 二百三十圓臺割을보여 二百二十九圓八十一錢의低價를示現하엿다 이에따라 京城市中綿糸布現物도 阪地急落에따라 買氣가 萎縮되어各店은 沈默을지키게되엿다

日本『레온』도 朝鮮進出

日本『레온』의 朝鮮進出은根本方針을 決意한것가타야 同社首腦部는 技術者數名을 帶同하고 二十九日總督府殖産局을 訪問 工場建設의 意向을 傳하는同時에 工場地의 選定에對하야協議하얏다한다

無煙炭賣上高

上半期卅八萬噸

朝鮮産無煙炭은 今春以來備印炭의 不採算으로 俄然好轉되어日本內地需要旺盛에다가 朝鮮內需要도擴大되어 朝鮮無煙炭鑛組合의調査에依하면 本年度上半期

中小商工金融救濟

金組無盡에小規模損失補償
所要經費來年度豫算에要求

理財課에서立案中

大資本進出에依하야 立案中에 울고잇는 中小商工業者의 救濟는焦眉急務로서 昨秋開催된 朝鮮産業經濟調査會에서도 論議되엇슴으로 總督府財務局에서는理財課가 中心이되어 目下그具體策에對하야 硏究中인데 問題의骨子는

一、信用程度가不明인것

一、對象의限界가模糊漠然한것等에依하야 獨逸과가티 金融補償制度組合에依할지 或은 別個로 金融會社를創設하야 損失補償을 行할지또는 折衷主義에依하야 項目의方法으로할지에關하야 財務局內에 意見이 對立되엇슴으로 우선漸進主義를 採用하고明年度부터 金融組合、無盡會社에 小規模의損失補償을 與하고中小商工業者金融에의 積極的活動을促하야 實績의推移를보고서漸次이것을 擴大强化할方針을決定하고 所要經費를 十三年度豫算에要求하기로되엇다한다

朝鮮—北支 直航路要望

對滿貿易의 伸展에 伴한 朝鮮의 關係上其使命의 重要性을가진 朝鮮은 工業觀의 膨脹과共히 北支에의 市場開拓을 根幹으로 하기에 至하얏는데 現在月二三回의 仁川、鎭南浦兩港으로부터의 大連中繼에 依한 貿易한것이 잇슬뿐으로 如斯하야서는 其市場進出의 意義를 減却할情勢이다 一般荷主는 右에鑑하야 北支事變을 契機로 同方面에의 進出을 企圖하고直通航路의 開始와 增加를 希望하고잇서近間運動을開始하리라한다

○多年의懸案인 中小商工金融難打開策은 비록 小規模로나마 損失補償制度를 十三年度부터 實施코저 立案中이라하니반가운소식

○金組、無盡을通하야 얼마나效果가잇슬지는 두고보아야알일이나 業者自身들도 實力을涵養해야할일

○無盡會 無盡會로 다만 融資만바라서는안되것는一方 金融機關도 積極的으로援助해야만所期의目的을達할것

今日의市勢 【廿九日】

株式 閑散裡에 軟調

前場閑散

北支昨日의戰鬪는 二十九軍에 大打擊을 與하엿슴으로 朝米의氣配는 强하엿스나 警戒人氣는 依然强하야 東京、大阪이모두 軟弱하엿는데 當地만 上場로 少堅裡에 始하게되엇다。그러나 北支形勢如何에不拘코 모두 觀望態度를堅持하고 不賣不買함으로 場面은 相當히 閑散을 呈하엿스며 따라 市勢도 이러타할것이업는保勢로 終始하엿다

後場軟調

後場은 少弛裡에 寄付하後 場面은 依然閑況이엇스나 市勢는 軟調裡에 推移되엇다

仕手觀望繼續

北支事態의 擴大로 仕手들은 모두 積極態度를 버리고 事件의 推移를 觀望하야 不賣不買의 閑散을 呈하고 市勢도 小手가 傍觀하는限 어느쪽으로도 輻浮動에 不過한데 이와가티 仕市勢는 쉬사리 動할것갓지아니하야 當分間은 低價經續일모양가튼바 비록 積極買가업서 市勢는 上進치못하나 前途는 樂觀일것이니 크게 悲觀할 必要는업는 市勢이므로 低價를 買拾하야 持久의 作戰으로 나가면 勝利는 買方에잇슬것이라고期待하는편이 만흔것은 注目할

國債 警戒人氣 低調

【東京電】月末關係로 短資市場이 硬化模樣을 示하고잇는것과北支情勢惡化로 突込賣도업고依然警戒人氣로 場面은 活氣가적어 第三五分五錢高四分五錢低라는 任手關係의 浮動을示하고米貨償도 六分半三百六十六圓으로 大體로 五分半三百六十七圓으로 大體不變의市勢이엇다

▲甲五分利不申 ▲佛貨一九五九〇

期米 小幅往來 保勢

前場往來

今朝는晴天으로 阪地初付三十三圓九十六錢인四丁高 當은二圓三十錢인四丁高 中은二圓七十錢인七丁高로 先限은ㄱ의買煽으로 三十二圓〇六錢인 十五丁高로場寄始한後 阪地四節八十九錢까지下押함을件하야 八十七錢까지 下落하엿다가 阪地七節九十七錢으로九節九十三錢까지 小弛하물따라 九十五錢으로 結局反止 九十錢을보고 九十錢에止場하다

後場保合

後場은 三十一圓九十錢인 前止同價로 始場한後 二節亦九十錢으로 三節九十三錢을보엿스나 四節다시 九十錢으로 保合이엇다

强弱材의片片

郊外의稻作狀況으로보면 日本內地及朝鮮을 不問하고 豐作을否定할수업는 倭好順을 呈하야實賣成을 하지안흘수업고 倉庫內의 在米事情으로보면 東販其他一般內地市場은 그다지 在米窮迫이 업슬것가트나 朝鮮은어느市場을 不問하고 在米가枯渴되어 京城과如한 大都市에서는 奧地로 正租를 逆送하는 稀有의 奇現象을呈하야 來月에入하야는 在米海의 警化로 어떠

市場六感

【株】 當限落後요 北支에서는 勝捷을告하므로 好感될듯도하나 ▲人氣는 意外로 警戒가嚴重하야 不賣不買를 繼續 ▲事實北支事態의 擴大與否의 觀望는 依然困難 ▲싸움이 二十九軍과의것에 끄치고 停戰이되다면 解決은 早速히되리이나 擴大되어中央軍의 加擔이라도잇다면 時期는 遷延될것이니 ▲今後의支那側의 態度야말로 注目꺼리(金剛城)

【米】……此間의市勢는 大波瀾은 一段되엿스나 時局이險惡한 만큼 어느때 어떠한突飛的波紋을일으킬지 放心할수업는時期 ▲再昨日의 瓦落은 北支問題의緩和 昨日의反騰은 時局의再惡化! ▲今朝는 天津의 衝突이잇슴에도 東販市勢는 佛個狀態 ▲그러나 當地는 前場初付二圓〇六錢으로一時反撥을示할듯하엿스나 其後에는 모지부지反落 ▲要하면 時局에對한 行動도 既히一巡되어 마치變化的이것가리 別觀은업스나 大體로强保勢(鐘山)

三期의今後觀

當地의當中先三期의 今後推移가如何히될지 各限의事情을一考하면當限은 當地의在米潮과따라서渡米東巢의 米의 裸이업지아니하야一時三十三圓九十錢臺의 最高價를 示하엿는데 賣方은旣히 市山市場으로부터 渡米의整備를거의 完了한모양이므로 渡米의獎勢는 업슬것갓고 中限은 金太店을 中心으로한 買方主力側이 巨大한 賣玉을 依然擁抱하야 最後一戰을決하려하는 態度이오 또賣方은 專情으로보다 할지라도 來月의 渡米規模이如何할가 朝鮮의 騰貴가 어떠한 波瀾을 이르킬지 ... 片片이 散分하여잇는 强弱材를 如何히利用하여야할지 非常時代에 善處할問題이다

先限은 高價를現出할지도 모르나 真一全面的으로 現化되는 大도리어 好景氣를 呈하기 안흘가하며 一方政府는 明年度豫算을 又復增大하야 모든 財源에 莫大한 財源을 調達하야 公債發行을 하게될뿐 아니라 莫大의 「인플레」의 景氣時代가 必至할것이오 因하야 米價의 瓦落은 絶對업슬것이라는 强氣說도 업지아니하며 그反映으로는 物價抑壓은 政府의 旣定方針으로 時局의 混亂할수록 此를 實施하야 食料品의 價格을 抑壓하야 爆發適放任하지안흘것이다 即銀行其他金融機關의 一般物價抑壓의 一策이 아닌가하다 이와가티 片片이 散分하야잇는 强弱材를 如何히利用하여야할지 非常時代에 善處할問題이다

正米 傍觀裡에 釘着

京城不變

今日定期는 前場이 保合으로正米도이에따라 不變保合이엇는데 依然賣方의氣迷가 기퍼新材料가업는모양이다 ㊀三等三〇 四等三二、一〇 一等白米二四、五〇

仁川不變

定期軟調와 好順으로 一般人氣는 弱合이나 在米의 在米潮으로 産地가 貧情하야 商談은 皆無中 現狀이다 ㊀穀良 三等三二、四〇 四等三二、一〇 銀坊主三等三二、六〇 同三二、三〇 多摩錦三等三三、〇〇 四等三二、七〇 白米一三、七五 一三、五五

釜山崩落

繼續曠天으로 定期는 多少軟化步調이며 其地所相場價는 一般의高價警戒로 商談은 全然 자욱을 감추고 겨우精米側의 消費買가 散見될뿐이다 ㊀穀良三等三三、二〇 四等三三、〇〇 一等白米一三、九〇

大邱不變

市場來買上도이에 賣方이 雙方이 新材料가 업서 傍觀하야 市場은 閑散하야 閑況場面을 呈하엿다 ㊀穀良三等三三、七〇 四等三三、五〇 一等白米一三、七〇

群山保合

出廻는 一瞬이잇섯스나 新規賣物은업고 依然品薄을 報하고잇는데 天候回復과對日本內地賣買 皆無로 賣氣不振하야 雙方은 時期待로 傍觀이엇다 ㊀銀坊主三等三二、〇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一四、一四

木浦釘着

現品薄、順氣候의 促軟材料의 交錯으로 氣配는 方은 沈默할수밧게업서 ...

釘着的保合을 示하엿다 ㊀銀坊主三等三二、七〇 四等三二、四〇 一等白米一四、一〇

各地受渡內容

	石數	價格
大阪	八、五〇〇	三四、〇〇
東京	一〇、七〇〇	三四、五〇
神戶	二、八〇〇	三三、三〇
下關	五、一〇〇	三四、二〇
名古屋	八〇〇	三四、四〇
群山	三、五〇〇	三三、六〇
木浦	一、〇〇〇	三二、八〇
大邱	一、〇〇〇	三三、六〇

恐怖的材料가 업서 買方은 安心하고 人氣야 引取할것가리 當然했든 後限이 新期의 安限으로 變하야 本格的 限가다가 十二月의 先限은 十八九힐것 가트며 先限의 期渡限間人 다시 中限과의同樣의 形勢를 보일 新米의 氣分이 잇서 米月에 發見될는 新市場의 趨勢에 多少追從할것을 參酌할수 잇스나 그러나 新米로서 從來하지못하는安値를 買安心하기 엇더할지 如何?

今日財界 廿九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先限 三二・〇〇 (前日比 不變)
大阪期米先限 三一・九〇
京城正米一石 三二・三〇
京城一等白米 四四・〇〇
正穀(仁川)一等 不變
一斤(京城)三等 不變
工부會社 不變

◆株 (單位十錢)

朝取 新
東新
鐘紡新

◆商品 (先限單位)

大豆三品
綿絲
綿花
人絹
砂糖

朝取期米取組內容

◇買方 ◇賣方

[illegible]

海外經濟 二十八日

[illegible]

銀行券 二十八日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金銀價

◆京城市內金銀價
◆東京金銀價

對外爲替

◆金買入價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紡績製品
◆京城綿糸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株式

◆朝取短期
◆短期主要取組高
◆算定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東京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期米

◆朝取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木浦期米
◆群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綿絲

◆大阪綿糸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糸

◆橫濱生糸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京城物價 (廿九日)

▲白米(石、單位圓) 一等 [illegible]
▲麥粉(三등、單位圓) [illegible]
▲肥料(一〇貫、單位錢) [illegible]
▲穀物(單位圓) [illegible]
▲鐵道枕木(一) [illegible]
▲燃料(貫、單位錢) [illegible]
▲洋紙(五〇連袋、單位錢) [illegible]
▲砂糖(百斤、單位錢) [illegible]
▲織物(單位錢) [illegible]
▲海産物(單位錢) [illegible]
▲飮料(斤、單位錢) [illegible]
▲染料(單位錢) [illegible]
▲木材(才、單位錢) [illegible]
▲本綿(疋、單位錢) [illegible]
▲人絹(碼、單位錢) [illegible]
▲毛絲(封度、單位錢) [illegible]
▲牛皮(乾百斤、單位錢) [illegible]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代金引換販賣部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 3939 1572 振替京城234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期米

株式 期米 玉 柳來恒取引店 仁川本町 京城黃金町

朝 益 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